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성령 하나님을 주시어 이 땅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31호 2013년 5월 11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2013년 5월19일 성령강림절 맞는 교회공동체의 자세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 달에는 어린이주일, 아버지주일, 교사주일 등이 연이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념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기념일이 5월 중에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강림절이다. 예수님 부활 후 50일(오순절) 쯤을 말하는 성령강림절, 올해는 5월 19일을 성령강림주일로 지킨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절기를 예사롭게 지내고 있다. 심지어 성령강림절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 채 지나는 교회들도 있다. 왜 이 놀랍고 귀중한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도 소홀히 되고 있을까? 이것부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안타까운 것은 이 절기를 소홀히 함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간과해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복음적인 기독교인의 많은 숫자가 뜨거운 열정과 충만한 기쁨, 그리고 확신이 결핍돼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

실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고백을 갖지 못하고, 그의 영광과 권세에 합당한 자리를 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완성이 부활이다. 필연적으로 부활은 신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가르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들이 예수처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적극적인 배려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경험한 신자들의 신앙완성이 성령강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영과 혼, 그리고 육체에 충만히 임하는 그날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이 내게 강림하시는 절차와 그 입체적 경험을 제대로 못해서 만족할만한 신자노릇을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부활이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부활절 이후의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 담대히 예수부활을 선포하며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 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담대해진 것만이 아니라,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분이 지금까지 믿고 기다린 참된 메시아시며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회심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거나 혹은 신앙 성숙 및 믿음 지키기에 모두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필요하다.

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중요한 의미

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5월 19일 성령강림절은 예수현존이 성령 안에

서 이 세상에 구체화됨을 드러내보인 사건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정통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되시며 동시에 세분의 인격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구분되고 있어 이 관계가 혼돈되지 않는다. 세 분의 역할도 구분된다.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를 보전하시며 구원을 계획하고 지속하신다. 아들 되는 예수는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어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 성령은 교회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과 목회를 지금도 계속하신다. 그 역할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세 분의 사역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이며 완전한 것이다.

세 분이 하신 사역은 완전한 것이고 서로 협력적인 것이며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은총이 되신다. 그러나 삼위 일체 사역에서 특별히 성령의 사역은 특별한 역할이 있다.

(2면으로 계속)



2면

예수와 함께 하는 시간 통해 삶 변화시켜 나간다!



7면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안 황의영 목사(SBM 대표)



13면

은혜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유경옥 전도사 (수목미술선교회 회장)



16면

다시 보는 은혜의 땅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사 고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USB(MP3) 발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본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준 목사)이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성지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 15편 전체가 USB(MP3) 메모리로 제작됐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0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 과제인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한 도전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강의하며, 특히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목회/선교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선교 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3강의와 2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한 강의 당 1시간 15분 쯤 주어져 총 소요시간 16시간. 특히 기존의 CD가 아닌 명함 크기의 USB로 제작돼 지갑 속 휴대가 가능케 함으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가격은 30달러(국내우송료 포함).

강사는 김성길, 김종준, 장영준, 권태진, 황의영, 이영섭, 김기원, 김승천, 이만형, 김혜천 목사로 강의순 순서대로 수록돼 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미국내 우송료 포함)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제 8 회

다문화 음악 축제

Intercultural Music Festival

- * 흑인 교회 / Eastminster Presbyterian Church / First United Presbyterian Church
- * 백인 교회 / Messiah Christian Church / Southminster Presbyterian Church
- * 히스패닉 교회 / Living Water Pentecostal Church
- * 아시안 교회 / Lord Jesus Korean Church

일시: 2013년 5월 19일, 오후 4시

장소: 주 예수교회 (배연찬목사)

(2011 미국 장로교 “사회봉사상” 수상)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 T. 804-560-7500, 7509 / F. 804-560-7514 / www.ljkc.org



시론

그 날을 기다리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인생은 신앙과 인내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놀라운 목표에 도달한다.” 프랑크 음악가 클라우트 폴 터파넬이 한 말이다. 이 말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하면 더욱 절박한 말인 듯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에도 자손이 없었지만 약속을 받은 후 2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아들을 보았고, 손자들을 보는 데는 또 60년의 세월이 무정하게 흐른 뒤였다. 그러기에 히브리서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11:13)하였다고 기록하였다.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결국 약속하신대로 출애굽 할 때 그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출1:7)하였지만 아브라함은 길고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만을 바라보아야 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이 무의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빛으시기 때문이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서 얻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 조금도 주저함없이 순종하였다. 그렇게 장구한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기다림 속에서 다듬어진 연단을 통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식까지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신앙인격으로 만들어진 아브라함을 보면 기다림은 최고의 훈련도구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딸 지지 그레함 처비지안은 자녀가 7명이었다. 당연히지만 신앙의 명가답게 자녀교육에 정성을 다하였고 아이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었다. 그런데 7명 중에 중간에 있는 아들 톨리안이 사춘기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다. 톨리안은 수도 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아이 덕분에 수시로 학교상담실에 불려갔다. 불량한 친구들과 사귀고, 마약, 절도, 폭력에 노출되어 경찰이 커다란 개를 끌고 와서는 집을 수색하기도 하였다. 지지는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였다. 어머니로서 달래도 보고 꾸짖기도 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다가 16살이 되었을 때는 아예 가출해 버리고 말았다.

아들이 집을 떠난 날, 지지는 이런 시를 썼다. “주님, 그를 돌려보내소서/이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소서/그러나 그가 멀리 있는 동안에도 그에게 가까이 계시옵소서//그리고 근심하는 나의 심령에 평화를 주소서/날마다 흐르는 눈물이 기도로 변하게 하소서/무엇을 해야 할지/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나에게는//주님, 오늘의 제물로 괴로운 어머니의 상한 심령을 받으소서/그리고 내 아이를 돌리키사/집에 머물게 하소서.” 절절한 어머니의 고통을 읽을 수 있다. 지지는 이런 고통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연약하고 힘없는 자신의 손을 떼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놀랍게도 6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21살이 된 아들이 돌아왔다. 그것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톨리안은 돌아와 결혼을 했고 지금은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이 되었다. 많은 가정에 속앓이가 있다. 이미 깨져 버렸거나 금이 간 부부관계, 혹은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들과 불화를 겪고 있는 부모, 영원한 평행선이라 하는 고부간의 갈등, 그 외에 밖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가정조차도 깊은 시름에 병들어 있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열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도움들이 실효를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은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기다리라! Never, never, never give up! 전능하신 하나님(엘 사다이)께서 도우신다!

인터넷 통한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경계!

이코노미스트, SNS 인터넷 계정 통한 확대조짐 보도

아랍어(Arabic)는 오랫동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사용해온 언어이며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 단연 으뜸이다. 아랍어를 쓰는 아랍 지역은 급진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다. 아랍어가 없다면 급진주의자들은 신참을 훈련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활동하는 데도 지장이 많을 것이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아랍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이슬람) 신앙심과 연계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이슬람 경전 구문이 아랍어로 기록됐으며, 이슬람의 지혜와 배움도 아랍어로 전승됐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지는 최근 아랍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인터넷과 SNS 계정을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급진주의 확산이 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The languages of jihad: Islamic extremists are an increasingly multilingual bunch, especially online).

최근 아랍어만 사용하던 성전(jihad)주의자들 사이에서 다른 언어의 사용이 늘고 있다. 테러단체 알카에다(AI-Qaeda)는 오랫동안 자생적이며 독립적인 소규모 테러조직의 출현을 권장해왔다. 테러 전문가 헤그햄머는 무슬림이 소수를 이루는 지역의 언어와 이슬람 성전에 동정적인 이들의 언어로 번역된 급진주의 문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알카에다 조직의 전략인 알쉬리는 지난 2005년에 발표한 1,600페이지에 이르는 자신의 저작 “세계적 이슬람 저항으로의 부름(The Call to Global Islamic Resistance)”이 영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로 제작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근동정책연구소(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의 연구원이며 관련 인터넷 사이트(jihadology)를 운영하고 있는 이슬람 지하드 전문가 제린은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자생 테러주의자들의 활동이 아주 다양한 언어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벵갈어(Bengali), 힌두어(Hindi) 그리고 우르두어(Urdu,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같

은 언어를 사용하는 언론들도 지하드의 이념을 선전하고 있다. 이슬람 급진주의 인터넷 언론 ‘세계이슬람언론전선(the Global Islamic Media Front)’은 최근 말리에 군사 개입을 한 서구 국가들에 보내는 알카에다의 북아프리카 지역 조직의 지도자 와두드의 경고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 또한 규모가 큰 이슬람 인터넷 토론 사이트 알 무자히딘의 국제판 사이트에서도 각가지 언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들이 첫째로 선호하는 외국어는 단연 영어이며 알바니아어(Albanian), 보스니아어(Bosnian), 필리핀어(Filipino, 파갈로그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프랑스어(French), 독일어(German), 이탈리아어(Italian), 푸슈투어(Pushtu,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 스페인어(Spanish), 우르두어(Urdu) 그리고 위구르어(Uighur, 위구르 부족의 언어)로도 문서들이 작성되고 있다.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적들에게도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원하고



있다. 상대방이 경고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위험은 충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카에다는 말리에 군사 개입을 한 국가가 프랑스이기 때문에 알 무자히딘의 국제판 토론 사이트를 통해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로 말리의 군사 개입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들은 효과적인 대중선전을 위해서 영어는 물론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와 같은 인터넷 소셜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남부 소말리아를 장악한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무장단체 샤바브(Shabaab)은 영어로 트위터 사용에 열심이다. 샤바브의 아랍어 사용자 팔로워(follower, 트위터에서 특정 개인/단체의 메시지를 받아보는 이용자)는 5천명 이하였으며, 소말리아어 사용자 팔로워는 5백명 이하이지만, 영어사용 팔로워는 2만명이 넘었다. 샤바브의 트위터 계정에 협박과 위협의 메시지가

를 올리자, 지난 2013년 1월 샤바브의 트위터 계정이 폐쇄됐지만 그 다음 달인 2013년 2월 샤바브는 다시 트위터를 계정 개설했는데, 한 주 동안 2천명의 팔로워가 모여들었다. 샤바브는 새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다시 급진주의 메시지를 유포하고 있다.

결론으로, 가상현실인 온라인상의 인터넷 SNS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침공이 감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통해 생명을 파괴하고 테러를 감행해서라도 알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짓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는 인터넷 테러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크리스천들은 먼저 기도로 이슬람 급진주의의 확산을 방어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지구촌에 평화를 약속하는 살롬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종적 방어에도 앞장 서야 할 때다.

<1면에서 계속>

이 사역은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life)을 충만(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케 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되도록 모든 자원(resource)을 공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renew) 세상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이루도록 인도하시고(guide) 사람을 부르시는(calling) 사역이다.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체험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갖게 된다.

성령 충만은 기독교의 삶의 질을 바꿔 놓는다.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한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게 쉽게 이해시켰다. 포도나무와 포도가지의 비유에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안에 가지가 굳게 붙어있는 것처럼 굳게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거하게 된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며 매일 매일을 살아가게 된다. 관계의 풍성한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교회와 개인의 생활에 예수의 질을 만들어 놓게 될 것이다. 이 영적인 삶의 질은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시는 영적인 질이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며 또 기도해야 한다.

결국 마세를 만난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하고 권면해준다. 악한 세상은 선한 것은 배우지 않고 악한 것만 배우려고 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편집부>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서리:유원정.

Midwest Summer Special Global Leadership Seminar

June 13, 2013, 9:00 am- 5:00 pm, June 14, 9:00 am- 12:00 pm



Rev. Shemchenko Russia Christian Leader



Dr. Bob Fu President of China Aid, IFPP Director



Bill Federer IEC President,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Dr. Kum Y. Kim, President of Midwest Alumni



Dr. James Song, President of Midwest University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리더십 박사과정 입학문의 손동원 교수 covenant@unitel.co.kr 세계 각국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을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Seminar

Prof. Sung Joon Kim (St. Louis University Ph.D Candidate) Blended Courses - CC 502, CC523 ICA Certificate June 10-14, 2013



27th Anniversary Graduation Ceremony June 14, 2013, 3:00 pm



27th Anniversary Midwest Summer Concert June 14, 2013, 7:00 pm

Register Now! e-mail to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usa@midwest.edu (636) 327-4645, St. Louis, Missouri

캐나다 대법원 '증오발언' 금지규정 축소

CT, 캐나다복음주의협회 대법원 판결 평가 보도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의사 표현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동성애자를 공개 비판했다가는 '증오발언' 금지법이나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성경에 비추어 동성애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설교자의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 최근 캐나다 대법원이 이 난제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판결을 내놓았다(Major Hate Speech Ruling in Canada Affirms Biblical Principle: Canadian evangelicals find reason to cheer Supreme Court's unanimous ruling against Christian who distributed anti-gay pamphlets).



윌리엄 왓콧이라는 근본주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활동가가 2001-2002년 사이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일대에 동성애를 격렬하게 비판하는 전단지들을 배포했다. 이 전단지를 받은 네 사람은 서스캐처원 인권위원회와 공조해 왓콧을 준사법기관인 서스캐처원 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재판소는 왓콧이 자신의 성적 성향

교단체들이 법원에 정식 참가자로 개입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캐나다복음주의협회도 그 가운데 하나. 동 협회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적 논의에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go 위해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다며 종교적 자유의 실제적 보장은 불가능하다며 이 소송에 개입했다. 지난 2월말 캐나다 대법원은

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모욕하는 출판이나 전지"를 금지한다. 캐나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의 부류의 품위를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모욕하는"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넓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복음주의협회는 외형

"소아마비 근절은 서방세계 음모"

월드, "이슬람무장세력, 치료행위 거부" 보도

소아마비를 지구상에서 뿌리 뽑으려는 의료인들이 이슬람 무장단체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월드(World)지가 보도했다(The polio threat: Health workers are making a push to eradicate the virus worldwide, but Islamic militants threaten to end their work).

2013년 초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의 폭력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아직도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유일한 몇몇 지역에서 소아마비 면역 백신 접종 사업을 펼치는 20여명의 의료인들을 살해했다. 이들 무장 단체들은 백신보급 사업에 무슬림을 불임시키게 만드는 서방의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 나이지리아의 무슬림 성직자는 이 백신이 AIDS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계 여러 구호 단체들이 2018년까지 소아마비를 근절 시키겠다는 운동을 펼치면서 의료인을 향한 이러한 공격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미국 뉴욕시의 볼룸버그 시장은 향후 6년 이내 소아마비 근절을 목표로 하는 단체들을 돕기 위해 빌과 멜린더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에 1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볼룸버그 시장의 발표이틀 전, 파키스탄에서 한 무장괴한이 마드라 지역 외곽에 위치한 주택에서 소아마비 백신 접종



에 대한 저항은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1988년 전 세계 125개국에서 35만 명 가량이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러나 그 후 20여 년 간의 대대적인 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2012년에는 세계적으로 225건의 감염 사례만이 보고됐다.

년 미국의 정보기관 CIA가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DNA를 수집하기 위해 거짓으로 소아마비 접종 사업을 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뉴욕대학교 의료센터(Lan-

이슬람 무장단체, 소아마비 면역 백신접종 의료인들 살해 현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아프간서만 볼 수 있는 풍토병

을 뇌주던 두 여성에게 총을 쏘았다. 다행히 이 여성들은 다치지 않고 도망쳤지만 총격전에서 이 여성의 경호원이 사망했다. 2013년 2월 초, 북부 나이지리아에서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하던 의료인 아후스 명이 오토바이를 탄 무장괴한에게 살해당했다.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 당국은 이번 공격이 탈레반과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Boko Haram)과 같은 단체들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북부지역에서 이슬람 법 샤리아(Sharia)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면서 2012년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을 살해한 단체이다.

최근의 소아마비 감염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에 이르고 있지만 소아마비 백신 접종 사업

인도는 한때 소아마비 퇴치가 가장 힘든 지역으로 여겨졌으나, 2012년 인도에서 공식적으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박멸됐다. 의료 종사자들은 이제 소아마비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볼 수 있는 지역 풍토병이 됐다고 말한다.

일부 의료인들은 세계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슬람 무장 세력들의 공격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2년 파키스탄의 한 탈레반 지도자는 북부 파키스탄에서 미국의 무인비행기 공격이 멈출 때까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161,000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2011

gone Medical Center)의 의료윤리 책임자인 캐플란(Arthur Caplan) 박사는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막는 행위에 대해 서방의 정치가와 종교 지도자들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캐플란 박사는 소아마비 백신 접종 금지에 대한 침묵은 전쟁에서 전락상 아이들을 죽이고 불구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말과 같으며, 절대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 의료인들은 세계에서 몇 군데 남지 않은 지역에서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용감히 대처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데 그 이유는 소아마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창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 비난 기독교인 패소불구 의미 있는 판결"

을 이유로 다른 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조장해 서스캐처원 인권법전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고소인들에게 총 1만7500달러를 배상하고 앞으로 전단지를 배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한 왓콧은 정식 재판에 청구했지만, 법원 역시 왓콧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왓콧은 또 불복했고, 2010년 2월 25일 서스캐처원 항소법원은 인권재판소와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결국 '서스캐처원 인권위원회 대(vs) 왓콧' 소송은 캐나다 대법원까지 갔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동성애, 인권 같은 첨예한 사회적 쟁점이 집약된 이 소송에는 캐나다의 여러 인권, 사회단체와 중

이목이 집중된 이 소송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왓콧이 배포한 전단지 4종 중 2종은 인권법전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왓콧이 직접 글을 쓰고 제작한 전단지 2종은 '권리와 자유 헌장'이 보장하는 표현 및 종교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서스캐처원 인권법전을 위반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 2종은 제3자가 제작한 동성애 옹호 광고 인쇄물에 왓콧이 자신의 견해를 밝힌 짧은 문장을 덧붙인 것으로 증오를 표현하는 출판물을 금지하는 인권법전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스캐처원 주 인권법전은 "증오를 드러내거나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부류의 품위를 비웃거나 무

으로 왓콧이 패소한 것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제적으로는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 '증오발언'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축소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이번 소송에서 법률자문을 맡은 캐나다복음주의협회 허친슨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성경 구절들, 성경적 믿음 그리고 그런 믿음들에서 나온 원칙들은 합법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공격 담론에서 개진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결국 본질적으로, 대법원은 진리를 말하는 가운데 행간에 증오심이 들어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고하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성경적 원리를 확인했다."

미주한인이민110주년기념

한인큐반 청소년 모국방문 초청 경비마련 골프대회

Fundraising Golf Tournament for the Korean Cuban Youth

미주한인전국재단에서는 미주한인이민 110주년을 맞이하여 107년전 모국을 떠나 멕시코를 거쳐 큐바로 떠난 288명의 한인큐반 후손들의 삶을 찾아 나섭니다. 노예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군자금을 보냈던 이들의 후세들입니다. 반세기 이상 공산권사회속에서 살아온 한인큐반 청소년들을 모국방문초청을 통하여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주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변 한인큐반청소년 모국방문초청경비마련골프대회를 개최하오니 부디 참여하여 주셔서 뜻있는 골프대회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3년 6월 20일 목요일 오후 12시 샷건
- 장 소 로스트 캐년
- 연락처 미주한인전국재단 전국사무실 : (305)576-9001 uskorea@att.net
- 참가비 100불
- 상 품 다음 호에 발표

★ 입장자에게는 이번 액자에 기념상장과 상품을 본 재단의 상임 고문님이신 임용근, 신호범, 김창준 의원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 공동준비위원장: 김정국 프르, 전김, 달라스김승현 회장, 캔사스정영로 회장, 휴스턴정정자 회장, 마이애미노재승 회장
- 운영위원장: 전김 헤드프루 여성운영위원장: 심형희 관장, 박미영
- 주관: 미주한인전국재단 한인후손특별위원회
- 주최: 미주한인전국재단 (National Korean American Foundation)
- 후원사: Miami - 마이애미멤사렛슨, 마이애미멤사렛빌리지, 마이애미코탈리저한인장로교회, JJ 매니지먼트 회사, 마이애미 노재승공인회계사, 마이애미아담스 로펌, 마이애미생령나무한의원, 마이애미오스태권도
- Los Angeles - 소향, 성박사 스시, K-Lee Seamless, Mapi Fashion, Bagle Apparel, F&F, Fashion Love
- 후원언론사 및 단체: 마이애미재외동포신문,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월드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남의 집 평안을 비는 사람

누가복음 10장4절에 보면 사명을 주어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분부가 있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랬다. 말하자면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을 버리라는 말씀이다. 지금 신발신고 보냄 받은 곳으로 가는데 또 한 켤레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또 무언가 더 움켜쥐려고

배낭이나 돈주머니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이 탐욕을 절제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Simple life 단순한 생활을 사명자 삶의 원칙으로 명명하신 것이다. 주어진 현실을 자족할 줄 알아야 사명을 이룰 수 있다. 이정도 있으면 됐지! 이 정도면 살만하지 라고 말하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 그 끝

도 없는 탐욕을 억제하고 단순한 삶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 비로소 사명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사명자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않는 법이라고 더 폭신한 인생을 살려고 더 폭신한 등지를 만들려고 더 몸부림치게 하는 끝없는 탐욕을 버리고 이제 그만 단순한 생활을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고 문안하지 말고 하시는 데 좀 도와 달라고 많은 것 가지려고 구걸을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야 좀 더 높이 올라가 멀리 볼 수 있는 독수리처럼 우리들은 하늘을 높이 날며 창공을 휘젓고 다니는 독수리의 인생으로 축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짐을 옮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만들 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단순해지면 불편해질 것 같은가?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좀 답답할 것 같은가? 보시라! '그 집에 유하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신다는 것이다. 내가 알아서 좀 터이니 이것저것 염려하지 마라. 하시는 것이다. "일꾼은 삯을 받는 것이 정상이요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내셨다면 오늘 말씀대로 일꾼에게 먹을 것도 안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 걱정하지 말고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다. 인생을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품고 살아야 한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집이 평안할 까이다 그랬다. 주님이 사명자에게 부탁하시는 인생"으로 살라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하여 돈을 벌고 자기가정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나만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한 인생인 것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 먼저 제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이 집에 평안할지이다" 하고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평안을 누릴 것이고, 그 집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기도한 축복이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남이 잘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

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터전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우리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벼랑에서 있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란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업 잘되기를 바란다. 진짜 세상말로 부자도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부자와 풍부함과 그 넉넉함이 여러분 하나만이 아니고 남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한다. 우리 교회들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품고 다른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잘 되게 해주는 아름다운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한다.

푸 / 른 / 초 / 장

변영익 목사
(벤엘장로교회)



행6:1-16에 보면 초대교회인 에루살렘교회가 처음 집사를 세울 때 가졌던 세 가지 추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사람들의 욕 중에 "성령 받지 못한 목사가 되라"는 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고역이요 하나님께는 불충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련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즉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믿음에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겨 놓으면 교회를 산으로 끌고 갑니다. 세 번째 기준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모범적 신앙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나 봉사자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학자도 또 말을 잘하는 달변가도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칭찬이란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욕에 갇힌 몸으로 자신이

직접 빌립보에 가지지 못하므로 자기를 대신하는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요,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을 추천하기를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즉 거짓이 없이 너희를 사랑할 뿐 아니라. 너희 어려운 사정을 진실하게 도울 자라는 것입니다. 딤후1:5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 고난으로 연단된 자
바울은 본문 22절에서 디모데는 고난으로 연단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3. 죽도록 충성하는 자
본문 30절에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함께 갈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합니다. 바울은 에바브

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추천하는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억만금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죽으면 고만인데.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난 것은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늘 양심에 가책을 받게 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랄 수 없네"(새찬송 94장)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에게 정말 그렇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가 받은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주의 일꾼으로 추천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진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으로 연단된 사람이라고 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 (빌2:19-30)

라고 추천을 합니다.

1. 진실하게 행하는 자

본문 20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읍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 곧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그는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라고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진실한 믿음을 배우며 자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여기며 사랑함으로 눈물로 디모데를 그리워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진실한 것은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진실히 대할 자가 디모데 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를 잘 영접할 것과 그의 지도를 받을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의 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과 함께 온갖 고난으로 함께 연단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친 아버지에게 하듯 수고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으로 연단되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게 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고난으로 연단되지 않은 자들이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연단된 자들이 하여야

로디도를 소개하기를 그는 죽기에 이르도록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긴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생과 수고가 많았지만 매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마 모름지기 바울은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마다 새 힘이 솟아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것을 견디며 나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2:10절 말씀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말씀은 우리의 섬김과 충성의 극치를 '죽도록'이라고 했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 일시 : 5월 16일(목, 저녁) ~ 23일(목, 저녁)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818) 306-4912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KWMA 운영이사/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본당, 부속건물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정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가정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현상들이 우리 가정들이 거대한 세상의 파도 앞에서 풍전등화의 상태임을 증거한다.

오늘의 가정의 고통과 위기에 대한 현실은 너무도 충격적이다.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가정의 위기를 경제적 사회학에서 찾는다. 사실 미국의 가정들은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한다.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도 대공황이후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장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팽배하고 있다. Michael Snyder는 그의 저서 "The Beginning of the End"에서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의 악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

년 전에 비해서 건강보험이 없는 가정은 38백만에서 52백만으로 증가되었다. 의학적인 혜택을 받는 것도 어렵다. 1965년에는 50명중 1명이 메디케이드 수혜자였다. 지금은 6명중 1명이다.

미국의 경제적인 위기도 위기이지만 더 큰 위기는 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David Novak은 그의 저서 "Talking with Christians"에서 미국은 도덕적 절대적 가치관에 기초하던 것이 이제는 윤리적 상대주의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주류 교회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교리로부터 멀어졌다. 따라서 종교는 도덕적 요구를 제외한 심리학에 근거한 유사영성으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Schlessinger가 지적한대로 죄와 죄의 구속의 필요를 부인한다.

미국의 변화는 가정의 구조의 변화로 나타났다. 정부자료도

것과 같은 수준을 보인다. 진정한 돌봄이 어렵다는 말이다.

왜 미국의 가정이 위기를 맞았는가? 물질중심적인 사회생활은 가정의 위기를 초래한다. 부모가 함께 일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데이케어에 의존하게 되며 이 아이들은 심리적인 위기를 경험한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팀은 매일 6시간 이상 데이케어에 보낸 아이들은 취학 시 협력, 나눔, 동기 부여 등에서 뒤떨어진다고 한다. NIH의 조사도 마찬가지다. 데이케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3학년이 되기까지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최근에 Richard Wolff가 "경제와 가정생활"에 기고한 "The Family Torn Apart"에서 가정의 위기를 미국의 중산층은 이제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빛을 지고 있다고 했다. 미국인의 스트레스는 사회적인 의학적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미국인들은 세계 인구의 5%밖에 되지 않지만 수많은 신경안정제들과 정신과 치료제들의 65%를 사용한다. David Barsamian은 "자본주의와 불만족"이라는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 아래 살고 있는

가 가정에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다(삼하7:29, 욥8:6).

셋째, 하나님 안에서 가정은 질서가 있다. 부부관계(엡5:25-31)와 자녀관계(엡6:1-3)가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약속과 함께 주신 명령이다(엡6:4). 가정의 질서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의 길이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모습은 무엇인가? 1)결혼의 신성함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2)결혼의 친밀성이 있다. 결혼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것이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창2:23-25). 결혼은 떠남과 하나님이 있다.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3)결혼의 상호성이다. 결혼은 서로를 향한 헌신이다(엡5:25-30). 4)결혼의 배타성이다. 다른 그 무엇도 부부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 이러한 성경

가정의 위기 시대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한다. 미국의 가정들의 위기는 경제적인 면에서 먼저 나타난다.

2010년 미국인들의 45.4%만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의 오직 1%가 전체 수입의 25%의 소득을 올린다. 최근의 Deloitte Consulting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가정의 74%가 소비를 절제한다. 당연히 엔젤지수도 높아졌다. 수입의 23%가 음식과 가스 구입으로 사용된다. 놀랍게도 캘리포니아 주의 60% 공립학교 학생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급식을 받게 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푸드 스탬프를 받는 사람들이 지난 4년 동안에 배로 증가되었다.

미국 센서스 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극빈가정 어린이들이 2백만명 늘었다. 미국 노동국의 보고는 미국의 실업율이 39주 동안 기록을 깨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년에 비해서 중산층이 10%가 줄었다. 미국인의 절반이상이 매주 500불 미만의 봉급을 받고 있다. 미국의 크레딧카드 빚은 30년 전에 비해 8배가 증가되었다. 자신의 수입보다 136%가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중국은 평균 17%에 불과하다) 10

1980년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77%에서 2004년도에는 68%로 감소되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6% 증가하였지만 편모가정은 7%에서 25%로 증가했다. 이혼한 가정은 지난 13년 사이에 43%로 증가했다.

결혼의 실패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Moore나 Jekielek 등 대부분의 연구가들의 결론은 분명하다. 가장 좋은 가정의 구조는 생물학적 부모가 같듯이 없이 사는 것이다. 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 미혼모의 가정, 재혼한 가정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 또한 재혼하여 새가족과 함께 살 때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가족의 모델들도 급변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는 관계로 동거하는 것은 1990년에서 2000년까지 71%나 증가를 했다. 함께 동거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갈등과 폭력을 경험한다. 만족도와 헌신도 역시 결혼한 가정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동거하는 부모들 둔 자녀들의 75%가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혼과 분리를 경험한다. Doherty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이 입양한 아이들도 홀부모와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했다.

사람들이 가정과 결혼에 대한 정서가 혼돈된 시대에 산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바른 가정관을 가져야 한다. 가정이 무엇인가? 결혼은 무엇인가? 결혼은 계약인가 아니면 언약인가? 동성애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음란과 간음, 유산 등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는 이슈들은 끝이 없다.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첫째,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개의 기관은 가정과 교회이다. 창세기 2장은 진정한 가정의 의미를 보여준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라는 의미는 이를 파괴하는 그 어떤 것도 사단적인 뜻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은 복의 길이다. 신5:16에서 모세는 부모공경을 강조하면서 가정에서의 순종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한다. 복의 통로

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피할 수 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가정은 인간의 죄 때문에 위기를 겪는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가정의 위기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죄와 관계가 있다. 죄가 어떻게 결혼과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불순종은 창조주의 가정에 대한 뜻을 거역하는 해독을 끼친다. 죄의 결과로 일부다쳐, 이혼, 간음, 동성애, 정절, 그리고 성의 역할에 대한 혼돈이 왔다.

진정한 가정의 위기의 극복은 죄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회개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성경적인 원리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 나가는 가정의 위기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가정의 위기의 극복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옴으로부터 시작한다. 아담과 온 가족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벨엘로 돌아가는 그 길만이 이 시대의 가정들을 위기에서 살리는 성경적인 처방이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5월은 가정의 달로 지난 5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녀교육을 이상적인 모델로 삼는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진 부모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A: 유대인의 가정은 지금부터 1300년 전부터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이어 내려오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셰마(Shema)라는 작은 가족상자를 집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셰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 상자 속에는 양피지에 적은 성경말씀이 있는데 아침, 저녁 기도시간에 꺼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셰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카(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6:5-9).

셰마(들으라) 교육...조석으로 성경말씀 읽어

이 유대인의 셰마를 우리는 신명기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이 셰마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교육전통이 되도록 선포한 것입니다. 이 셰마에는 3가지 즉 1)유일신 하나님 사상 2)하나님 사랑 3)자녀교육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전통에 나오는 명령은 자세히 살펴보면 영어성경에서는 3T로 나타나는데 1)Teach 가르치라-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2)Talk 말하라 강론하라-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3)Tie 매라-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셰마인 유대인 교육명령은 자녀를 가진 부모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데 첫째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가정환경의 분위기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고 집의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가정의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이 닿는 곳, 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적절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Teach & Tell 즉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당이가 아니라 부지런히(Diligently)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잠22: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의 가르치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노크'로서 훈련시키라는 말입니다. 하찮은 미물인 개도 제대로 훈련시켜야 개구실을 해서 집에서 대소변을 가릴 줄 알고 주인에게 고분고분 순종합니다. 하물며 고귀한 인간도 아이들을 자기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사람구실 못합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신앙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아들이 겨우 말을 시작하게 될 무렵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링컨이 9살 될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불러 엄마가 죽더라도 너는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담임목사 청빙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인필라델피아교회' 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본 교회는 39년된교회로 자체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개척하는 심정으로 사역해 주실 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격 합동/통합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 하신분

제출서류 이력서
목회소견서
가족소개서
최근 6개월 내 설교 CD
대학 및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제출 마감 6월 15일
제 출 처 31 Grove Ave, Flourtown PA 19031
The Korean Philadelphia Church
전 화 267 243 7779(민병운장로) / 215-836 -9886

한인필라델피아교회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어
복음
광고
판권
다. 11. 2013. 5. 11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LA기운실 설립 20주년 기념만찬과 축하공연에 초대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조촐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_ **2013.5.18 (sat) 5pm**
1부: 오후 5시/ 기념식 및 기념 만찬
2부: 오후 7시/ 축하공연, 흥순관의 춤추는 평화 Dancing with Peace
* 오후 5시 기념만찬은 초청받은 분만 참석 할 수 있으나, 참석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소_ 마음이 가난한사람들의 교회(251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주최_ **LACEM** 로스앤젤레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문의_ LA 기운실 213-387-1207 / cem_la@yahoo.com / www.lacem.org



홍순관님은 노래하는 시인이자 가수입니다. 고운 노랫말과 서정성, 기독교적 영성과 역사성을 노래 안에 담아내면서, 생명, 평화, 환경, 어린이 등을 주제로 수백 회가 넘는 공연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땅에 평화 박물관을 짓기 위해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평화박물관 건립 모금 공연 <춤추는 평화-Dancing with Peace>를 10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장의 음반을 발표 했으며, <내가 걸으면 하나님도 걸어>라는 단상집을 냈습니다.



목회서신

왜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가?



노상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지난 4월 15일,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로 3명이 죽고 약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29살의 식당 매니저였던 크리스티 캠벨(Krystle Campbell), 중국에서 보스턴 대학으로 유학온 린지 루(Lingzi Lu), 그리고 마라톤에 참가한 아버지를 응원하러 나온 8살 난 마틴 리차드

(Martin Richards)가 사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캔터키 주에 사는 천진난만한 2살짜리 여동생이 5살 난 오빠가 쓴 총에 맞아 죽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에 6개월째 억류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 씨(Kenneth Bae)는 북한의 굶고 허기진 어린이들을 위하여 외

부에 도움을 호소하려고 사진을 찍은 죄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왜 때로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받는 고통은 우리가 선택한 불순종 때문입니다(갈6:7-8).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동산은 원래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의지적으로 불순종을 선택했기에 그는 고통과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스스로 선택한 죄와 다른 사람이 선택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은 악한 세력 때문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고후4:4), 거짓으로 유혹하고(행5:3), 남을 고소하고 비난하게 만듭니다(12:10). 도적인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함입니다(요10:10). 그럼, 왜 사랑의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짓지 못하도록 하시면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능력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할 능력이 없으면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참사랑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선택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제공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악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지도 않으셨으며 도덕적인 책임도 없으십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죄의 결과이고 그 뒤에 존재하는 악한 사탄의 역동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지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징계

이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며 고통을 당하는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고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죄 없이 온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어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시38:7). "주님,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소서!"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성인 37% '포스트 크리스천'

미국 성인의 37%가 교회 출석도, 기도도 안하는 '포스트 크리스천'인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트 크리스천은 믿음에 수반되는 행동이 없다는 점에서 속칭 '가나안(안나가를 거꾸로 읽은 것) 성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포스트 크리스천 지표

-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 나는 무신론자다
- 신앙은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
- 최근 1년간 기도하지 않았다
- 예수를 위해 헌신한 적 없다
-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 1년간 교회에 헌금하지 않았다
- 1년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 예수는 죄를 범했다고 본다
- 전도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 지난주 성경을 읽지 않았다
- 지난주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았다
- 지난주 주일학교에 가지 않았다
- 지난주 기독교 소모임에 가지 않았다
- 1년간 가정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5개 항목 중 9개 이상 해당되면 포스트 크리스천

기독교 전문조사업체 바나그룹은 미국 성인 4만 28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가 포스트 크리스천이며 이 중 9%는 정도가 심한 포스트 크리스천으로 분류했다고 7일 밝혔다. 바나그룹은 독실하지 않은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최근 1년간 기도하지 않았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금하지 않았다, 지난주 성경을 읽지 않았다,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았다' 등 15개 항목(표 참조)을 만들었다. 이 중 9개 이상이 해당되면 포스트 크리스천, 12개 이상이면 정도가 심한 포스트 크리스천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세대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포스트 크리스천 비율이 67세 이상 노년층에선 28%인 반면, 18-28세 청년층에선 거의 절반(48%)을 차지했다. 29-47세 장년층은 40%, 48-66세 베이비부머 세대는 35%가 포스트 크리스천이었다.

지역별로는 편차가 커 뉴욕 주 올버니는 포스트 크리스천이 63%에 달한 반면, 루이지애나 주 시리브포트는 12%에 불과했다. 바나그룹 대표 데이비드 커너만은 "미국인의 70% 이상이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이 없으면 무신론자와 다를 바 없다"면서 "37%의 포스트 크리스천을 제외하면 63%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있으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포스트 크리스천화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여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오바마 "이스라엘 공격은 정당한 권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거점을 둔 무장 정파 해즈볼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동원해 레바논 헤즈볼라 본부로 향하던 시리아의 이동식 대공 미사일과 무기를 폭격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내놓은 반응이다.



시아과 계열의 이슬람 최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맞서 결성됐으며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강력한 후원자로 알려졌다. 외신들에 따르면 멕시코와 중미를 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스페인어 TV 방송인 텔레문도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제 공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정부가 확인 또는 부인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과거에도 말해왔고 지금도 믿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이 첨단 무기가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매우 근접해 있고 레바논과도 가깝다는 사실을 고려해 이스라엘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크리스천 52% "이슬람은 폭력적 종교"

미국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이슬람을 폭력적인 종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독교 전문 조사업체 바나그룹은 미국 성인 100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크리스천의 52%가 "이

슬람은 근본적으로 폭력적인 종교"라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9·11테러부터 최근 보스턴 테러까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저지른 일련의 잔학행위가 이 같은 인식을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인 전체에서 이슬람을 폭력적인 종교로 여기는 비율은 26%에 그쳐 기독교인과 비(非)기독교인 간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슬람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도 크리스천의 62%가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반면 미국인 전체에서 이같이 답한 비율은 33%에 그쳤다.

또 연령대가 높고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할수록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고, 젊은 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슬람에 호의적인 경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가 지구촌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지만 미국인 전체의 75%, 크리스천의 68%는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 사이의 평화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북한, 특별관심국 지정 경고

미국의 독립적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지난 30일 북한을 비롯한 15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13 연례 종교자유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로,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지도부가 바뀌었지만 북한에서 인권 및 종교자유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탈북자 등에 따르면 종교 활동에 대한 차별과 박해는 물론 은밀한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체포와 고문, 처형까지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들에 대한 학대와 감금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가 있으며, 수많은 주민이 '불법' 종교활동 때문에 체포, 감금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정권은 주민의 거의 모든 일상

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억압에도 은밀한 종교 활동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확산을 막으려는 정권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도주의, 종교자유, 인권 등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고, 경제·정치·외교적 지원과 이런 분야를 연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과 함께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 지정 대상으로 건의한 국가는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등이며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8국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침례회, '침례' 명칭 변경 움직임 확산

미국 침례회 소속 교회들이 이름에서 '침례'라는 단어를 삭제하려 한다고 마이애미 헤럴드가 6일 보도했다.



침례는 세례와 같은 의미로 교회의 중요한 예식 중 하나다. 물을 떠서 머리에 얹는 세례와 달리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한다. 물 속에서 죽음으로써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뜻한다. 그러나 침례의 본래 뜻과 달리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고리타분한 이미지로 미국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코럴게이블스에 있는 '크리스트 저니' 교회는 최근 교회 협의회에서 95%의 찬성률로 교회 이름을 변경했다. 이 교회는 지난 87년 동안 '유니버시티 침례회'였다. 교회 담임인 빌 화이트 목사는 "오늘날 '침례'란 말은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만큼 많은 맛을 갖고 있지만 뜻이 명확하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침례회는 가톨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교세를 자랑해왔다. 그러나 백인 보수 세력의 침범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면서 신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침례회는 지난해 6월 총회 출범 167년 만에 처음으로 흑인 목사를 총회장으로 세우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아직도 스펙에 올인하고 있는가 그대, 스펙을 넘어 스토리 감동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스토리의 강력하고 신비한 매력!
이 책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스토리를 창조할 수 있는지 영적 원리와 해법을 알 수 있다.



315면 / 12,000원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소강석

- 이 시대 최고의 스토리텔러 목회자, 소강석목사가 들려주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위대한 스토리의 세계!
- 비천한 노예와 강간 미수범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애굽 총리에 오르는 요셉의 생애에 은닉된 스토리의 베일이 벗겨진다.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도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맨발의 소망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페어리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증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 성소권**
성소권 352면 / 12,000원
-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 531면 / 18,000원
- 십자가를 체험하라**
십자가를 체험하라 320면 / 12,000원
- 생명나무**
생명나무 503면 / 16,000원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안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황 의 영 목사

(SBM 대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6:4-9) (2) "Hear, O Israel" -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2. 구약시대의 교육과 전통을 이어간 배경

1) 족장시대-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창12:2) 그 언약이 이삭에게 이은 독자 이삭을 통해(창15:4; 17:19,21), 야곱(창28:15), 그리고 열두 지파에게 이어지게 했습니다(창35:23-26; 49:1-28). 따라서 언약의 말씀이 계승되었습니다.

2) 성막시대-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430여 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극적으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성막(광야교회, 행7:38)을 중심으로 새로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3) 성전시대-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 율법이 설퍼되었습니다. 다윗

의 특별한 신앙이 솔로몬에게 이어졌으나 솔로몬은 말년에 부귀영화에 도취되어 말씀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편의 말씀을 살펴봅시다(시78:1-8).

비극이 연출되었습니다. 말씀을 저버린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대하36:5, 6).

4) 회당의 출현-바벨론 포로생활을 통해 말씀을 탐구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랍비를 중심으로 회당교육이 발전했습니다.

5) 신앙의 전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외친 메시지의 내용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야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

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라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3. 신약시대의 교육과 다양성

1) 성전(율법)과 회당(복음)이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형식으로 치우치고 본질이 흐려졌습니다.

2) 오순절의 성령강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나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3)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돌기동들만 남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크게 부흥하던 유럽의 교회들도 쇠퇴하였습니다.

3) 1620년, 영국에서 모진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대륙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데 오늘에 와서 신앙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절대 진리인 성경 대신에 인본주의와 쾌락주의가 탐자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4) 그렇지만 유독 유대인들은 독특한 정신과 신앙의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 갑니다. 어떻게 그런 민족이 되었는지 그 배경과 과정을 세밀히 살펴봅시다.

2. 전통문화의 특성과 그 영향 - 교육의 풍토

어느 나라(민족)에나 그들의 고유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원시시대부터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계

시에 세대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고방식과 행동양상이 변하면서 세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적인 자녀교육을 논해야 합니다. 전통문화의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합니다. 그 양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전통문화의 영향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태어나서 성장하며 고유한 언어와 생활관습을 익혀갑니다. 전통문화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전통문화의 영향이 얼마나 크고 끈질긴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 전통문화의 핵심과 문명의 중심은 종교입니다.

Arnold J. Toynbee(1889-1975) 박사는 "A Study of History"의 역할을 통해 역사의 중심은 문명(civilization)이고 그 핵심이 종교에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등이 그 나라의 문명을 좌우하고 그에 따른 특수한 생활문화가 형성됩니다. 아울러 종교의 영향이 가치관, 사고방식, 정체성, 윤리의식, 좀 더 나아가 정치적인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3)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을 통해 특수한 전통문화를 형성해갑니다.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의 모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를 중심한 가정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랍비를 통한 회당교육입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끊임없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절대적 영향력 가진 전통문화의 핵심과 문명 중심은 종교 유대인 신앙교육 모델은 부모의 가정교육과 랍비 회당교육

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고 말씀(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발전했습니다.

B. 역사적인 관점

1. 교회역사가 보여주는 문제점과 그 양상

1) 사도바울이 설립한 교회들이

속 이어오는 독특한 생활문화는 풍습을 형성하고 전통을 만들어 계승해갑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특수한 전통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불교의 영향으로 갖가지 샤머니즘과 유교에서 비롯된 허세를 내세우는 양반문화 등입니다.

그런 가운데 물질문명의 급격한 발달에 힘입어 가치관이 바뀌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창함과 동

투고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성지순례)에 참석하고



임영건 목사 (열린교회 담임)

덮쳐 온 하나님의 사랑

덮쳐 온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숙박할 예루살렘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덮쳐왔다. 그냥 '덮쳐왔다'는 표현이 맞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이 다니셨던 흔적을 더듬을 수 있는 그 은혜 자체부터가 감격스러웠다. 성지순례 갈 형편이 아니었지만 은혜 받고 오라고 섬겨주시는 이들의 중보기도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

었다.
3일간의 세미나를 통해 시간간간 많은 도전을 받았다. 이 세미나를 미리 알았다더라면 목회자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회한이 있었다. 목회의 기본도 모르고 목회를 했구나 하는 자책감과 함께 세미나는 목회에 있어 그동안 감졌던 눈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3일간의 세미나 이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항상 기도하러 가셨던 감람산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여정을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 솟아 있는 황금 돛이 기도론 시내 건너 가까이 바로 내려다보이는 곳,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때로는 우시곤 하셨던 예수님... 그 눈물의 기도와 심장을 어떻게든 이식 받아 가길 소원하며 행보를 시작했다. 38년을 앓던 환자를 치료해주신

베데스다 연못, 눈먼 소경을 흠에 침을 뱉어 눈에 바르고 내려가 씻게 하여 치료하신 실로암 연못,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가나 혼인잔치 집, 오병이여로 기적을 행하신 현상들을 둘러보며 묵상할 때 새롭게 다가오는 진리도 큰 기쁨이지만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의 길을 갈 때...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 서 있는 느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

여행 중 황당한 사건

여행 중에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짐 사람이 들어가자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간 것이었다. 실로암 못에 빠져 버렸다. 우물 안에 끈이 들어진 기둥들이 서있는 곳으로 발을 헛디뎠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일으켜도 일어나지를 못했다.

짧은 순간에 만감이 교차했다. 허리나 엉치뼈가 부서져도 많이 부서졌겠다는 생각과 함께 병원에 입원해 몇달 동안 이스라엘에 있어야 할 생각을 하니...

노 전도사님이 달려와 부축하여 일단 한 칸의 의자에 앉게 했다. 그리고 다 같이 너나 할 것없이 뜨겁게 기도했는데 허 목사님의 "네 믿음을 대로 뭉치어라!" 통성기도 후 마침내 기도처럼 외치는 일갈까지 들려왔다. 그런데 기적이었다. 실로암의 기적을 그곳에서 체험한 것이다. 말쑥했다. 마치 거짓말처럼... 그런데 말쑥하던 발이 저벅이 되니 통증으로 한 발자국도 단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장영춘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기도해주시고 사모님들께서 파스와 진통제도 주셨다. 그다음날 일정에 꼭 가고 싶은 곳이 많은데 발이 아파 걷지를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걸어보니 또다시 거짓말처럼 말쑥했다. 기도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실로암 못이 아니어도 충분했다.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다.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요즘 실로암 못에 목욕한 사람이 누가 있는나... 그것도 대낮에...

아내대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친 것도 있었다. 사해 바다에서 진흙에 미끄러져 나도 모르게 양다리 물장구를 품당치게 되었다. 그 순간 왼쪽 눈에 쫄아와 함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사해 소금물이 눈에 들어간 것이다. 눈에 들어가면 고생하니까 조심하라고 했지만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 내 주변에 있던 이들도 나 땀에 졸지에 분변당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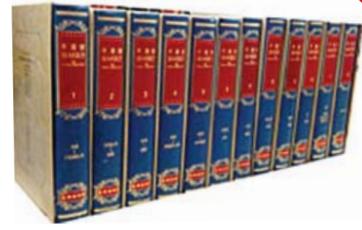
(13면으로 계속)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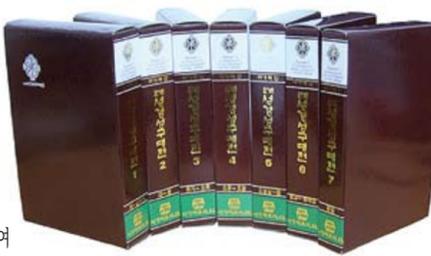


32 Set 한정특가판매 (1set 12권)

이끼엔 백성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 1권: 가~ 납하스
 - 2권: 다~ 못
 - 3권: 솟아~ 소위
 - 4권: 소유~ 오늘
 - 5권: 오늘날~ 종
 - 6권: 종고~ 히데갈
 - 7권: 편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를 이에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기념타올 판촉물 신설

자수인쇄 BATH 타올
잉크프린팅 BATH 타올



JoyLA가 확! 달라졌습니다

CROSSWAYS! 크로스웨이성경연구교제

- 크로스웨이 1권~5권
- 크로스웨이 사례집
- 크로스웨이 오디오CD
- 크로스웨이 수료증
- 크로스웨이 PPT 슬라이드

미주독점판매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조이기독백화점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35. 육식의 기원

전 세계 70억 명이 하루에 먹는 곡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한국 사람들이 먹는 양의 절반만 소비한다고 해도 하루에 곡물 700만 톤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우리들의 주식인 쌀뿐 아니라 보리, 옥수수, 밀, 수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사람들은 쌀 한 톨, 보리 한 톨, 밀 한 알도 만들 수 없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조금은 실감이 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자인 터키의 루스드라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였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 모든 족속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행14:15-17).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도 주셨는데 바로 ‘고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음식은 창조 때부터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

1. 육식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인류가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최근이란 때는 무려 몇백 만년 전이다. 그 때는 인류의 키가 100cm정도밖에 안되어 사냥할 수도 없었고 사자가 먹다 남은 시체를, 하이어나 두 날개를 벌리면 180cm나 되는 독수리들에 밀려 그 동물들이 먹고 남

데 사람만 진화가 될 뉘 모습도 논리적이 않을 뿐 아니라, 지방을 많이 먹으면 지방을 다루는 유전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반 과학적인 상상이다. 더욱이 그들은 발견된 두개골이나 뼈들의 나이를 측정하지도 않고 필요에 따라 결정을 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한 진화론자가 잘 말해주고 있다. “화석이 변덕스럽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 뼈들은 당신이 듣고 싶은 노래를 부를 것이다”(Shreeve, Argument over a woman, Discover 11(8):58, 1990). 수 백만년의 연대들은 일반인들을 속여 떼게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결정할 것이지 측정할 것이 아니다. 진화론자들의 이런 뻔히 보이는 반과학적인 설명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설명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2. 육식의 기원

진화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사

라서 사람은 풀을 주식으로 하여 살기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음식으로 주셨다(창1:30). 현대 과학자들은 동물들이 그 풀(셀룰로스)들을 소화할 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던 세상에서는 사람도 동물도 모두 초식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육식은 언제부터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육식을 허락하신 때는 노아홍수 이후다.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찌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창9:3).

그러나 노아홍수 당시의 화석을 보면 이미 육식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죄가 들어온 이후 먹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물들 뿐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미 육식을 하였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인계열 중에 아담의 8대손인 야발은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였다(창4:20). 실제로 성



육식의 시작과 성경의 역사

사람은 원래 채소와 과일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다. 죄가 창조 질서를 타락시켰을 때 노아홍수의 심판 사건 이후에야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셨다.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피워인 우리에게 주셨다. 이 소식이 복음이다.

되었다는 것이다. 진화론자들이 흥적세라고 하는 이것은 285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진화론자들은 인류의 기원을 아프리카로 본다)의 숲이 점점 줄어들어 각 동물들 간에 먹이 경쟁이 벌어졌는데 인류는 가장 연약하여 고릴라 비슷한 파란트로프스에게도 밀려 할 수 없이 동물성 지방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고기를 먹기 시작하자 뇌가 커지고 몸집도 커지고 힘이 세어져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있는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고기를 먹게 되었고 이에 따라 150만년전에 현관의 기를기를 제거하는 유전자 생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동화 같은 놀라운 이야기가 인류의 육식에 대한 진화론적인 기원이다. 다른 동물들은 다 진화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인

람은 원래 육식을 하지 않았다. 진화론자들은 그 근거로 멧돼지 같은 어금니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빨 모양이 음식을 찌는 절단적인 기 준이 될 수 없다. 남미 밀림지대에 킨카주(Kinkajou)라는 동물이 있는데 실물보다 두개골이 먼저 발견되었다. 그 동물의 치아를 본 과학자들은 그 동물이 틀림없이 육식을 할 것으로 생각해서 닭고기를 미끼로 삼아 덫을 놓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잡히지 않았다. 미끼를 바나나로 바꾸자 드디어 그 동물이 잡혔다. 이빨이 무섭게 보이지만 킨카주는 초식동물이다.

사람이 처음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성경에서 나왔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채소와 과일(창1:29). 그래서 사람들은 채소와 과일만을 먹었다. 치아가 그렇게 생겨서 채식을 한 것이 아니라 채식을 하도록 치아가 그렇게 디자인 된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보아도 이 성경기록은 사실로 확인이 되는데, 사람은 채소와 과일을 소화할 수 있지만 셀룰로스가 중성분인 풀을 소화시킬 수 없다.

경에 기록된 맨 처음 가축 쳤던 사람은 아벨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야발을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벨과 다른 목적 즉 고기를 위한 가축들을 키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또 야발의 이복형제인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자였는데(창4:22) 사냥하는 도구나 살상 무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셨을까? 홍수 후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과학이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도 금하신 것이 있었는데 동물의 피다(창9:4).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생명을 먹어치우는 끔찍한 행위를 금하셨을 것이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제사에만 사용하도록 하셨다. 후에 그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이신 창조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살과 피를 죄인인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자녀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 복음이 마음속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하나님을 바라보면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진로가 정해집니다. 돈을 열심히 바라보면 돈 돈 돈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살인까지도 불사합니다. 권력을 바라보면 힘하는 자리만을 눈에 붙을 키고 잡으려합니다. 여자(남자)를 바라보면 그 여자(그 남자)의 마음을 얻고 제 마음대로 하고픈 것에 삶이 집중이 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면 그 문제에 삼켜집니다. 문제의 크기가 자신이 감당할 범위를 넘어서면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아 힘겹기만 하면 문제를 잊고자 사람들은 손쉬운 방법을 찾아 술을 마시거나, 쾌락에 빠지거나 회피하기도 합니다. 온갖 종류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면 중독이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각종 우상들에 눈을 주면 저가 바라보는 우상의 모습대로 비인격화가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인격이 배어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듬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시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역사4:9-10).

야베스가 처한 환경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떠한 고통이었던지는 모르지만 수고롭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컸던지 자기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야베스는 자라며 ‘야 고통야!’라고 이리저리 치이며 미운 오리 새끼로 자랐습니다. 구박받으며 사는 것이 결코 살맛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야베스는 그야말로 자신의 더러운 처지가 진지러나게 싫었습니다. 지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좁디좁은 우물 안에 갇힌 것같이 답답하고 숨통이 막혔습니다. 조여 오는 고통 속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저를 도와줄 어는 사람의 손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옥의 심연으로 빠져 들어가 절망의 바닥을 쳤습니다. 그 무엇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고통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숨막히는 상황만을 응시하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오직 도움을 청치시어 오신 여호와, 절대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머리 어느 구석에 처박혀있던 믿음의 작은 한 자락이 떠올랐습니다. 조상들을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주셨던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농동자같이 조상을 지켜주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시야를 바꾸며, 지경을 넓혀주시길 구했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확실히 바꾸었습니다. 그 분을 바라보면서 소원하였습니다. 복을 더해주시라고 입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를 시인하고 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지만 하면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꼭잡고 일으켜 주시리라는 생각을 죽기로 붙들었습니다.

벌떼같이 달려들어 마구 심정을 뒤흔드는 모든 번민 소리들을 거절했습니다. 오직 주만 똑바로 쳐다보며 폭풍우 환난 속을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품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복을 복을 더해 주세요. 지경을 넓혀 주세요. 주님 손잡아 주세요. 손을 꼭 잡아 도와주세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목말라 찾고 의지하는 양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생애는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귀히 여겨주시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는 누구에게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산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언제나 임시변통일 뿐입니다. 야베스와 같이 바라보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꾼다면 “구하는 이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눅11:10) 말씀의 약속대로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선택대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국 교회속에 뒤틀린 성령운동

신사도 운동이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한국교회를 뿌리부터 갈아먹고 있다. 진리인 것처럼 포장된 거짓 복음은 신비한 체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거짓 부흥을 사모하게 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사비 성령론과 무속적 신앙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빠지고 있다

진실된 성령운동으로 바른 영성을 노리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배경 /주석/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집유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성경, 찬송가 각종 기독교서적 전문 취급

신약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목회와 신학, 성경/찬송가,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웹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음악: 세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예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용양 선물용품, 시성/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이중통역기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박사, 풀업가운, 성가대, 인공위원, 드레스/강장영복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 교회 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세일합니다.

아직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바ible 아를렛 (도매부)

기념품 현금부투

각종 기념품 주문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소강대상, 강대상, 현금함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하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7 미가엘 반주기

뛰어난 휴대성! 확 바뀌고 달라진 기능!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원음에 가까운 연주
본체 고음질 스피커
USB 호스트 기능
SD카드 사용
터치스크린 방식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헬라성구사 에하드수정강대상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헬라만의 독특한 디자인

최저가격 보장 성구언제 최초 GD마크 획득! 한국디자인 인증원으로 부터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장남품업체 선정

이름이 자유로운 바퀴(360도회전) 손잡이(17종양 1톤용) 신년특별 유망특대 - 성교사 시력보조

이외에도 다양한 목재성구와 크리스탈 성구가 있습니다.

주문처 성경.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il.com

40-21 159th Suite 1B Flushing NY 11358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621 S. Virgil Ave. Suite 200 L.A., CA 90005 213-925-5434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가운, 달력, 다이어리



벨리교협주최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벨리교협,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 개최

벨리교회협의회(회장 이준우 목사)가 주최한 ‘국가기도의 날’ (National Day of Prayer) 기도회가 지난 5월 1일 오후 7시45분 벨리연합감리교회(담임 유재덕 목사)에서 열렸다.

이준우 목사(벨리커뮤니티교회)의 사회, 서승운 목사(새생명중앙교회) 기도예 이어 미국과 민족을 위해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설교는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가 “하나님의 탄식”(사

1:2-6)이란 제목으로, 미국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 성경적인 모습을 지적하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역설했다.

합심기도는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한 회개” 류재덕 목사(벨리연합감리교회),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방수민 목사(베다니한인교회), “자녀와 학교를 위해” 광덕근 목사(은혜와평강교회), “미국을 위해” 양수철 목사(에버그린선교회), “민족을 위해” 김영일 목사(벨리중앙장로교회)가 각각 인도했다.

이날 헌금은 다음세대 장학금을 위해 전액 사용되며 God bless America(신은석 권사)와 애국가 제창(조한우 전도사)을 하고 원로목사회장 고두선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사제공: 벨리교협)



믿는사람들이 주최하는 PIG 어프로칭 콘서트에 오는 17일 아시안발달장애 서비스(ARS)에서 열린다. 사진은 이번 콘서트에 참가하는 스키트로우 찬양팀

17일 ‘PIG 스윗 어프로칭 콘서트’

믿는사람들, ARS에서 ‘Stars of the May’ 주제로

믿는사람들(PIG 공동운영자 제레미박, 폴함)은 아시안발달장애 서비스(ARS)에서 ‘Stars of the May’ 라는 주제로 오는 17일(금) 오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PIG 스윗 어프로칭 콘서트를 개최한다.

PIG의 관계자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홀리원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서 좋은 반향을 일으킨바 있다. 이번에는 홀리원 콘서트와 함께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속한 분들을 하나님의 음악으로 찾아가는 ‘어프로칭 콘서트’를 마련했다. 그 첫 번째 무대가 바로 ARS의 장애인들을 위해 여는 ‘PIG 스윗 어프로칭 콘서트’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사회에서는 소외된 분들이지만 우리가 다가가야 하며 함께하고 싶은 스타와 같은 자들이다. 콘서트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열리는 만큼 주제도 ‘5월의 스타들’(Stars of the May)로 정했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ARS는 물론 세상에 가득 전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콘서트는 소프라노 클라라 김, 러브위스퍼, CCM가수 최은영, 스키트로우 찬양팀, 건반연주자 조셉문 등이 출연한다.

문의: peoplesingod@gmail.com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주최 정신건강 특별세미나에서 조만철 정신과 의학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행복한 노년’ 주제 정신건강세미나

한인가정상담소, 강사 안필립 조만철 박사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조)는 ‘행복한 노년’이라는 주제로 무료 정신건강 세미나를 4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성황리에 개최했다.

신경과 의학박사 안필립 박사가 ‘뇌의 노화와 치매에 대한 의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전체 강의를 했으며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강의가 진행됐는데 조만철 박사가 ‘노인 정신

건강의 이슈와 문제들’,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치매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대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조만철 박사는 “한국인들이 잘 안되는 것은 어려울 때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은 뇌에 생기는 질병 즉 ‘뇌병’이다. 이러한 증상은 약물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

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신질환 중 가장 많은 것이 불면증”이라고 지적하며 “불면증에 걸리면 수면제로 해결을 하려한다. 그러나 수면제 복용보다 먼저, 아침에 뜨는 해를 보게 하는 것이 좋다. 햇빛에는 신체를 리듬을 조절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그래서 햇빛을 통해 불면증을 치유하기도 한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 되면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며 이로 인해 불면증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 자살역시 정신질환 중 하나다. 자살을 생각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피하며 주변의 도움을 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증세가 심해지면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들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기 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5월 중 목회자들을 위한 조만철 박사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브라질한인 이민50주년 기념예배 및 경축찬양축제

“하나님의 은택 잊지 말라” 박재호 목사 설교

남미복음신문이 주최한 브라질한인 이민50주년 기념예배와 경축찬양축제가 지난 5월 5일 오후 4시 브라질새소망교회(담임 박재호 목사) 예루살렘성전에서 개최됐다.

원철웅 장로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와 찬양축제는 새소망교회의 브라질국가 연주와 임마누엘관현악단의 애국가 연주에 이어 살롬교회 담임 헨나도 목사와 새소망교회의 김상철 장로의 예배기도, 임마누엘관현악단의 특별연주, 할렐루

아찬양대의 찬양, 최대성 집사, 이석현 안수집사의 성경봉독, 권사찬양대의 찬양이 있던 후 박재호 목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브라질한인이민 50주년 기념예배와 감사찬양축제를 통해 브라질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고 우리들의 제2의 고향인 브라질의 무궁한 번영과 영원한 평화와 영광이 빛나기를 기원한다”며, “여기 모여 기념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

혜를 감사하여 찬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간절히 축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설교는 유정은 선교사(브라질현지 모지교회 담임)가 포어 통역을 했다.

이어서 어린이 중창, 소프라노 홍영숙 권사의 특별찬양이 있던 후 박상식 주 상파울루대한민국 총영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빠이네 이라교회 담임 밀톤 목사(포어)와 새소망교회 홍성현 장로(한국어)에 베네셀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며 시온찬양대의 찬양, 바리톤 최정혁 안수집사의 특별찬양, 살롬교회찬양대의 찬양, 빠이네이교회의 바다위업이 있었다.

이어 내빈축사 브라질대한인교회 김진택 회장, 김영호 목사(새소망교회)의 인사말이 있던 후 일본교회 사무엘 사쿠마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남미복음신문 관계자는 “참석해준 분들과 특별히 축하화환을 보내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50년 전 브라질에 처음 도착한 한인은 109명이었으며 현재는 5만 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기사제공: 남미복음신문)



제32차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제32차 정기총회

부총회장에 천우석 목사, 총무 김영재 목사 재선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제32차 정기총회가 지난달 22일부터 25일 까지 하와이 백향목교회(담임 김덕환 목사)에서 개최됐다. “은혜와 보답”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총회에는 180명의 회원 교역자와 사모들이 참석했다.

첫날에는 개회예배 및 목사 안

수식(조은실, 한희동 목사)이 있었다. 안수식에서 프라미스교회 담임 김남수 목사는 “내가 행하리라”(요 14:12-14)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총회장 이광희 목사와 9명의 안수위원들이 함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다.

둘째 날에는 조찬기도회와 성찬

예식이 있었으며 사무총회가 진행됐다. 이 총회에서는 헌법 개정안 논의와 임원선출이 있었다. 임기 2년의 부총회장에 천우석 목사(시애틀 뉴비전교회), 총무에는 김영재 목사가 재선됐으며, 부부 총회 총대로는 감사한인교회의 담임이며 증경 총회장인 김영길 목사가 재선됐고 7개 지방회의 지방회장들이 선출됐다.

또한 저녁에는 파송신교사들의 선교보고와 미래선교에 대한 보고를 통해 총회에 참석한 교역자들에게 선교에 새로운 도전과 감동을 주었다.

셋째 날에는 조찬기도회를 마친 후 하와이지역 관광과 저녁 시간에는 뉴저지중앙교회를 담임이며 증경 총회장인 이우용 목사의 인도로 부총회가 개최됐으며 마지막 날에는 조찬기도회 후 폐회를 선언함으로써 모든 일정을 마쳤다.

(기사제공: 하나님의 성회 한국총회)



제9기 목회자 아버지학교 기자회견을 마친후 관계자들이 아버지학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9기 목회자 아버지학교 열린다

6월 17일, 18일, 23일 플러턴장로교회에서

제9기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주최로 6월 17일(월)부터 23일(주)까지 플러턴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목회자 아버지학교는 지난 2004년 목회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후 2009년까지 해마다 열리다가 중단돼 2012년 8기 목회자 아버지학교로 다시 시작, 올해 9기가 준비 중에 있다.

목회자 아버지학교 1기생이자 팀장을 맡은 윤덕근 목사(얼바인 브릿

지교회)는 “처음 아버지학교에 참여할 때는 아버지학교를 통해 성도들의 가정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참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갖고 있던 아버지상에 대해서 정리하는 기회가 됐으며 나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공부와 훈련이 돼있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됐다. 또한 아버지학교를 통해 아버지의 본질을 찾고 이는 가정의 축복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아버지학교 준비담당인 김영찬 목사는 “아버지학교를 통해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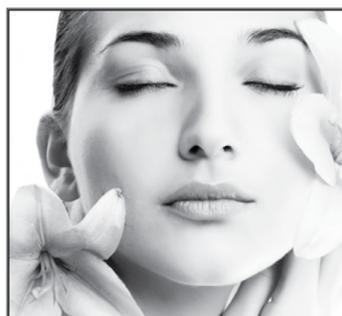
회자들이 겪고 있는 베일에 가린 어려운 문제들을 발견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9기 목회자 아버지학교에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학교 스태프들은 “아버지학교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9기는 아버지학교가 생긴 4444번째로 열리는 아버지학교다. 16일과 17일 이틀간 3번의 강의를 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가족을 초청해 대미를 장식한다. 강사는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 정대성 목사(덴버 새생명교회), 윤덕근 목사(얼바인 브릿지교회) 등이며,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을 받는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 등록 80달러, 10일 이후 100달러이며 OC목사회에서 50%, 풀러턴교회 동문 및 재학생들에게는 풀러턴인문문화에서 참가비 50%를 후원한다. 등록 및 문의는 미주본부 사무국 (213)382-5454, OC목사회 (562)833-5520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모나리자

스킨 케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품권 \$30, \$50, \$70, \$100등으로 준비했습니다.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샤워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리프팅/화이트닝케어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여드름 케어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팔슬림 케어(스페셜 기계도입)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등 경락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배 경락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전신 경락	1회 \$200	\$150	10회 \$1500	\$1250	1회 FREE
Aqua Therapy	1회 \$250	\$200	10회 \$2000	\$1800	1회 FREE

***1회 케어도 환영합니다.**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여성찬양 듀오 러브위스퍼의 이수정 이진미 집사가 시온성교회에서 열린 찬양집회에서 찬양하고 있다

여성 듀오 ‘러브위스퍼’ 찬양집회 성황

“하나님 찬양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

남가주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여성 듀오 러브위스퍼’(이수정, 이진미 집사) 찬양집회가 4일 오후 6시 세리토스에 위치한 시온성교회(담임 박문정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문정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찬양집회는 러브위스퍼의 이수

정 집사와 이진미 집사가 듀엣으로 ‘거위의 꿈’, ‘The Prayer’를 불렀으며 이진미 집사가 ‘바닷길’, ‘소원’, ‘이수정 집사가 ‘회복’, ‘반석위에’를 부른 후 박문정 목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했다.

이어서 특별게스트로 바리톤 장상근 교수(미주총신대학교)가 ‘십자

가의 전달사’, ‘You Raise me up’, ‘있으니’를 불러 집회를 빛냈다. 이날 집회는 러브위스퍼가 ‘야곱의 축복’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이날 모인 청중들과 함께 부른 후 박문정 목사의 축복기도로 마쳤다.

러브위스퍼의 이수정, 이진미 집사는 “큰 교회는 자체 장비와 찬양사역자를 마련돼 있지만 소형교회는 매우 열악하다. 감사한 것은 러브위스퍼의 찬양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려고 한다. 비록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지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듯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하겠다”고 말했다.

러브위스퍼는 지난달 20일 멕시코 티화나 빈민촌에서, 5월 3일 토렌스 우리교회에서 찬양콘서트를 가진 바 있다. 자세한 문의는 (714)723-2685로 연락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할렐루야복음화대회 준비모임 및 제2차 기도회
뉴욕교협(회장 김중훈 목사)이 주최하는 할렐루야 2013 대뉴욕 복음화대회 준비모임 및 제2차 기도회가 5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린다.

대한예장(합동) 해외총회 정기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총회장 엄기환 목사) 제 35회 정기총회가 5월 20일(월) 오후 4시부터 21일(화) 정오까지 뉴저지 주예수사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에서 열린다.

미드웨스트대학교 신입생 특별장학혜택
미드웨스트대학교(www.midwest.edu)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장학혜택을 제공한다.

김기홍 장로 초청 미주 춘계간증성회
미동부 지역 제 33차 김기홍 장로 초청 미주 춘계간증성회가 5월 9일 뉴욕할렐루야교회(담임 한기술 목사)를 시작으로 6월 16일까지 열리고 있다.

사무직원 구함
뉴저지에 위치한 팰리세이드교회에서 파트타임 남/여 사무직원 1명을 구한다.

제2회 KCBN 후원을 위한 미동부탁구대회
교역자부 우승 안영수, 문석진 목사

제2회 KCBN(사장 문석진 목사) 후원을 위한 미동부탁구대회가 뉴욕탁구장에서 4일, 5일 이틀간 열렸다.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장년부와 주니어부, 교역자부가 열렸고 둘째 날인 5일은 오후 2시부터 일반부 개인과 가족복식, 일반 및 교회 단체전으로 진행됐다.

한미농인신앙수련회 8월 뉴욕에서 열린다
(聖人)
뉴욕농아인교회 주관...재정후원, 자원봉사 필요

한미농아인신교회(회장 강철해 담임 이철희 목사)가 주관하는 제4회 한미농인신앙수련회가 오는 8월 뉴욕에서 열린다.



왼쪽부터 강상희, 황창호, 강철해, 이철희 목사



제 1회 성은선교장학재단 수여자들과 이만호 목사부부(앞줄 양쪽 끝)가 기념촬영 했다.

성은선교장학재단 설립감사음악회 및 수여식
제1회 10명 각각 1천달러 씩...연 2회 수여예정

성은선교장학재단 설립감사 제 1회 장학금수여 음악회가 지난 5일 저녁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만호 목사는 "사랑하는 딸 성은이 생전에 '아빠, 그 좋은 천국 조금 일찍 가면 안돼요?'라고 말한 것처럼 28세로 짧은 생을 마쳤는데 은행잔고정리를 하다가 너무 놀랐다"고 말하고 "성은이가 해오던 선교와 구제의 뜻을 잇기 위해 성은선교장학재단을 설립하고 1년에 두 차례씩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탁구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날 이철희 목사 외 강철해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농아부 담임), 황창호 목사(워싱턴DC 농인침례교회 담임), 강상희 목사(LA 남가주농아교회 담임) 등이 참석했다. 이 대회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농아인(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화를 주 언어로 하는 유일한 대회로, 2007년 남가주에서 열린던 제 1회 이후 2년에 한 번씩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2회는 워싱턴DC에서, 3회는 시애틀에서 열렸다. 매 대회마다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세계의 도시 뉴욕 맨해튼에서 개최하며 특강 강사로 탈북농아인이 직접 선교보고를 한다. 또 미주한인 농아선교에 공이 큰 인물을 선정해 "미주한인농아인선교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미농아인신교회 강철해 목사는 "미주내 한인농아는 5백여 명



뉴저지교협, 한인봉사단체 후원기금미련 골프대회

뉴저지 교협(회장 박상천 목사)이 한인봉사단체 후원기금 마련을 위해 지난달 27일 제 1회 '뉴저지교협 후원기금미련 골프대회'를 열었다. (윗 사진) 업스테이트 뉴욕에 위치한 '콩코드골프클럽'에서 열린 이날 대회장 이동주 장로(필그림교회)의 인사말과 교협회장 박상천 목사(소망장로교회)의 기도어 이어 프로골퍼 조용



뉴욕 뉴저지 지역 제회 목회자 영성수련회

라마나웃 기도원 설립 23주년 기념 제 1회 목회자 영성수련회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뉴욕과 뉴저지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윗 사진) 주강사 이승종 목사(샌디에고 예수마음교회 담임/여개동무사역원장)는 "예수그리스도의 선포" 등 5개의 강의를 했으며 방지각 목사, 이종우 원장, 김명해 목사, 계봉선 전도사 등이 각각 1시간씩 강의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advertisement featuring the text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and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It lists 'On Campus Courses' and 'Off-Campus Courses' with dates and locations. The main campus is in Winona Lake, IN, and there are branches in Los Angeles, CA and Manila, Philippines. Contact information for Dr. Ronald Manahan is provided at the bottom.

“기도로 나라를 변화시키자!” 남가주교계, 제62회 ‘국가기도의 날’ 연합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목사회, 성시화운동본부, 남가주 한인장로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JAMA가 주관한 제62회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예배가 2일 저녁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기도로 나라를 변화시키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나성순복음교회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강순영 목사(JAMA 부대표/올림픽장로교회) 사회로 열린 예배는 이운영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한미장로교회 담임)가 환영인사 및 기도를, 광부환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총무/한마음제자교회 담임)가 성경봉독을,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지휘 조한우 교수)이 특별찬양을 했다.

이어 진유철 목사(남가주교회협의회장/나성순복음교회 담임)가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십니다”(눅



제62회 국가를 위한 기도날 예배에서 진유철 목사가 설교 했다

11:5-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진 유철 목사는 “미국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며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역 감당하면서 기도로 승리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

에게 한계상황이 올 때가 있다.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위대한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 수고와 희생을 아끼워하지 않

고 간청하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 미국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국가를 위한 기도가 시작돼 김춘근 장로가 ‘하나님 의존 선언문’을 회중들과 함께 낭독했으며, 박영집 장로가 “자신과 미국의 죄에 대한 회개”, 송정명 목사가 “교회와 목회자”, 이정현 목사가 “동성 결혼 철폐와 성경적 가정의 회복”, 박성규 목사가 “공립학교와 각종 교인들의 영적회복”, 서요한 목사가 “영화, TV, 방송, 인터넷, 언론계의 복음화”, 박효우 목사가 “대통령과 장관들”, 정시우 목사가 “입법부, 사법부, 군지도자들”, 정영희 목사가 “CA주와 LA시, 소방관과 경찰”, 정장수 목사가 “한인교회, 2세, 178개국에 흩어진 한인디아스포라”, 김광수 목사가 “고국을 위해” 등의 제목으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축도는 한기형 목사(미주성시화운동 상임회장/나성동산교회 담임)가 맡았다.

(박준호 기자)



LA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제10차 영적쇄신집회에서 원팔연 목사가 설교 했다



제1회 어린이 찬양제가 나성소망교회 주최로 열렸다

LA사랑의교회 제10차 영적쇄신집회 강사 원팔연 목사, 주제 “하늘과 소통하라!”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제10차 영적쇄신집회가 “하늘과 소통하라!”라는 주제로 원팔연 목사(전주바울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됐다.

첫날 저녁집회는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김기섭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 조상운 장로가 기도, 2부 찬양대가 특송을 했으며 원팔연 목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라!”(창 12: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원팔연 목사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기적이 생긴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75년에 걸친 전반기는 우상장사로 인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인생이었으며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성경역사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며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려면 순종의 신앙, 예배의 신앙, 인내의 신앙, 화평의 신앙, 대적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두가 이 다섯 가지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

나성소망교회 제1회 어린이 찬양제 합창, 중창, 독창, 워십댄스, 기악 등 실력 뽐내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욱 목사)는 월드비전 후원으로 제1회 어린이 찬양제를 5일 월세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했다.

본 교회 경배와찬양단의 찬양인도와 송동호 형제와 제인한 자매의 사회로 시작된 찬양제는 LA노인회 무용팀이 축하공연을, 테레사목사(어린이선교회)가 축사를 했다. 이어 참가자들이 합창, 중창, 독창, 워십댄스, 기악 등으로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주, 호프 뮤직스쿨팀의 바이올린 협주, 드림랜드 유치원 어린이들이 노래와 율동, 박해나 어린이의 바이올린 독주, 나성소망교회 아동부의 찬양율동, 데이빗 어린이의 색소폰 연주, 리디아 어린이가 첼로 독주, 라이언 어린이가 피아노, 김서연 어린이가 기타연주와 노래, 섀번 어린이가 색소폰 연주, 이안길, 예릴리 어린이가 피아노 독주 및 찬양과 드림연주를 선보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박준호 기자)

온누리소망교회 설립 1주년 감사예배 “복음 전하는데 열정 내는 교회되라”

온누리소망교회(담임 조묘숙 목사) 설립 1주년 감사예배가 지난 5일 오후4시 열렸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조묘숙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황성숙 집사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피터강 목사(폴러신학교 교수)가 “안디옥교회를 본받자”(행

11:19-3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강 목사는 “안디옥교회는 최초의 이방교회였고 가장 모범적인 자랑스러운 교회였다. 크리스천이란 명칭이 처음 나온 곳이기도 하다. 온누리소망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내는 교회, 성령 충만하고

착하고 믿음이 충만한 교회, 리더십을 키우고 팀 사역을 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돼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변명혜 교수(아주사 퍼시픽대학교 한국어부 디렉터)가 헌금기도를, 강해경 교수(폴러신학교 선교학 교수)와 Sid Sybenge 목사(호프인터내셔널교회 담임)가 축사를 했다. 이날 예배는 피터강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목회자 세미나
산돌교회(담임 나기영 목사)가 2013년 목회자 세미나가 5월 16일(목) 오후 5시 개최한다. 강사는 이재철 목사(한국100주년기념교회 담임)이며 170명의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갖는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714)901-1700, 767-4846, kiyoungna@hanmail.net

은혜한인교회 설립31주년 기념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가 교회설립 31주년 기념부흥성회를 16일(목)부터 19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6일 오후 7시30분, 17일 오전 5시30분, 오후 7시30분, 18일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19일 1부, 2부, 3부, 4부예배 등이다.
▲문의: (714)446-6200

미주 호크마말씀대학 공개강좌
미주 호크마말씀대학 한 시간 공개강좌가 남가주뱌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13일(월) 오후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열린다. 대상은 목사, 전도사 및 사모. 한편 미주예신전도대학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수시 입학이 가능하다.
▲문의: (714)401-9874

축 결혼
심진구 목사(그레이스미션센터 대표)의 딸 준영 양과 이옥희씨 아들 영복 군의 결혼식이 오는 6월 1일(토)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열린다. 결혼식 집례는 박희민 목사가 맡는다.
▲문의: (213)590-9191

박희민 목사, 한국 장신대 명박 학위 받아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 회장, 사진)가 지난 7일 한국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에 이바지 △장로회신학대학교와 미주한인교회 전체와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미주 한인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목회자, △총회 파송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봉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미주대표 회장 및 세계상임회장 역임 등 북한 선교를 위해 큰 공헌을 했으므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김명용 박사)의 개교 112주년 기념일을 맞아 열린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서 박희민 목사는 김유수 목사(광주 월광교회)와 박창하 목사(전 부천 복원교회 담임)와 함께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희민 목사는 새생명선교회 대표로, Geda International선교회 이사장, KCMUSA 이사장,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으로 활발한 사역과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의 침묵”, “이전보다 큰 영광”, “21세기 영적 리더십”, “사람을 품으라” 등 35권 정도가 있으며 역서로는 “유머 있는 설교”가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온누리소망교회 창립 1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적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ce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세계개혁교회 '서울선언' 채택

“교회간 연대와 일치, 개혁신학 정체성 강화”

세계개혁교회대회 참가자들이 '서울선언'을 발표하고 개혁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개혁교회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영우 목사)는 5일 "총신대에서 4일 열린 세계개혁교회대회 회의에서 오는 7일 폐회에 맞춰 개혁교회의 연대와 일치, 신학 정체성을 강조하는 '서울선언'을 발표하기

로 합의했다"면서 "세계 11개국 개혁교회 대표들은 개혁교회 간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를 선출, 향후 대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또 "이같은 제안은 헤르만 셀더하우스 레포500 대표 등 해외 대표들에 의해 공식 제기됐으며, 이는 비서구권인 한국교회가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한 데서 동기부여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자기 대회는 한국 유럽 북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 지역별 준비위원회 모임을 갖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회에서 40여명의 세계적 석학과 교회 지도자, 120여명의 국내학자들은 개혁교회와 당면한 과제와 부흥, 연합방안을 내놓았다. 제리 필레이 세계개혁교회연맹(WCRC) 회장과 제프리 주 미국 웨스트민스터신대 부총장, 김영우 총신대 이사

장 등은 2-3일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발제자로 나서 글로벌 동반자로서 개혁주의 교회라는 감정을 갖고 부흥과 연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레이 회장은 '개혁교회의 부흥과 연합'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수세기 동안 개혁교회는 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 분열을 거듭해 왔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개혁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부흥과 연합은 경제정의 강조, 예배·영적 갱신, 개혁주의 전통과 신학의 재해석, 연합을 통한 선교역량 강화, 교회와 사회의 포용·파트너십 촉진, 개혁교회의 정의·평화 증진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교수도 "개혁교회가 식민지 시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21세기 글로벌 교회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개혁신학, 교회간 연대를 강조해야 한다"면서 "특히 성경에서 발견되는 교훈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서양의 개혁주의 기관과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의 성장하는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디 선교사 회심110주년 기념 기도성회'

8월 18일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24일엔 청년대회

한국교회 대부흥의 촉매제가 됐던 로버트 하디(R A Hardie·1865-1949) 선교사의 회심 110주년을 기념하는 기도성회와 청년대회가 오는 8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하디 1903 성령한국" 대회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최이우 박용호 박상철 목사 등 7명)는 2일 "하디 선교사 회심 110주년을 기념하는 기도성회를 8월 18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청년대회를 8월 24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면서 "기도성회는 1만8000여명이 참석해 영적 각성을 부르짖으며, 청년대회는 한국대학생교회 등 다수의 선교단체가 동참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하디 선교사는 미국 남감리교 소속 의료선교사로 1903년 총영사령을 하고 함남 원산감리교회 주일예배 시간에 한국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죄를 참회하면서 원산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준비위는 대회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선한목자교회 성광교회 안양교회 북수원교회 베다니교회 종교교회 등 11개 교회에서 순회 기도회를 연다. 또 학술대회를 5월 21일 감신대에서 개최한다.

최근 4년 불교 371억-기독교 65억 지원

교회언론회, 문화부·서울시 편향지원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4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불교 관련 행사와 시설 건축에 371억원 지원한 반면 기독교 행사에는 65억 원만 보조해줬다고 5일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정부·지자체의 종교행사 지원 이대로 좋은가'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행사·시설물에 과도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년간 불교 연동행사에 20억

원을 지원했고, 같은 기간 문화부는 연동행사를 포함한 불교문화 행사와 명상수련센터·한마음체험센터 건립 등에 351억원2700만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템플스테이 지원금 690억원까지 합치면 1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불교에 이어 유교가 문화부로부터 4년간 331억9000만원, 천주교가 89억6850만원, 기독교가 65억 5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교회언론회는 밝혔다.

"교회 안나가" ... '가나안 성도' 현상 원인

한목협 최근 조사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교회 안나가'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된다고 해서 이들을 '가나안 성도'로 부르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전체 교인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교회에 정착하지 않은 이른바 '가나안 성도'라는 얘기가, 그렇다면 '가나안 성도'들이 교

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뭘까? 목회사회학연구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가나안 성도'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유로운 신앙을 원해서'란 응답이 3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회자에 대한 불만' 때문이란 응

자유로운 신앙을 원해서' ...30.3% 가장 많아

답이 24.3%,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19.1%, '신앙에 대한 회의'가 13.7%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다녔던 교회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물었다. 복수의 응답

을 허용한 결과 의외로 '교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교인들의 삶이 매우 신앙인답지 못했다는 응답이 30.6%, 헌금을 지나치게 강요했다는 응답이 30%, 담임목회자가 독단적이었다는 응답이 26.5%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불만이 교회를 떠난 주요 요인이 됐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회에 다시 출석할 경우 어떤 교회에 가고 싶은지 묻는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교회', '부정부패가 없는 건강한 교회' 등을 희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특히 고학력, 직분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서 상대적으로 목회자의 불만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응답이 많았다"면서 "교회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떠난 이들의 목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회 출석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응답이 53.3%, '가능한 빨리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응답이 13.8%였으며,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지만 불편하다'는 응답이 12%,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1%였다.

예장합동, 선거법 개정 타당성 논란

'세례교인 500명 이상 교회만 입후보' 삭제안

예장 합동(총회장 정준보 목사)은 1일 서울 대치동 총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세례교인 500명 이상 교회 사무자만 목사부흥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된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투표로 다시 인준했다. 지난 2월에도 한차례 인준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 이번이 다시 인준절차를 밟지만 선거규정을 대폭 손질할 수 있는 권한이 선관위와 실행위에 있는지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총회 서기 김형국(경산 하양교회) 목사는 "지난해 9월 총회에 제출된 선관위의 선거규정 개정안이 정처부와 규칙부를 거쳐 지난 2월 실행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그렇지만 '선거법 규정을 개정할 때는 선관위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디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켰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고영기(서울 삼일월교회) 목사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관위원 다수가 지난 3월25일 실행위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60명의 실행위원들은 보고 후 총회 선거규정 개정안 인준 투표에 들어가 찬성 56명, 반대 4명으로 인준을 통과시켰다.

황규철 총무는 "6월 임원선거 임후보자 접수와 9월 선거를 앞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행위가 총회를 대신해 선거규정 개정안을 인준하게 됐다"면서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총회장이 5인을 선정해 대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총대는 실행위가 97회 총회 결의를 뛰어넘어 선거규정을 임의로 변경했다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배재근(서울 동원교회) 목사는 "총회가 임의단체에 불과한 선거법개정위원회를 만들었고 선관위는 그들의 주장에 따라 선거규정을 바꿨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월권으로 조만간 선거규정효력정지처분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NY,NJ)교회 담임목사: 전희수 교육목사: 케터린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 오전 6:30(토) Tel: (718)359-7883, 직통: (646)270-9771 / 41-44 149th Place, Flushing NY 11355 E-mail: joynglorych@yahoo.com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 오전 6:30(토) Tel: (718)358-6225, 직통: (718)261-9433 /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 토요일예배: 오후 6:30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014 www.moakny.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9-1977, Fax: (516)883-1961 /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목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461-2810(Fax: 경음), (917)373-3411 /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 2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ell: (917)338-1777 /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j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 252-00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일예배: 오전 7:15 / 2부예배: 오전 8:30 / 3부예배: 오전 10:15 / 4부예배: 오전 12:00 / 5부일예배: 오후 1:30 / 6부 BM&M: 오후 3:00 / 7부일예배: 저녁 7:30 / 수요일예배: 오후 8:30 /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Tel: (718)762-5756, 2525, Fax: (718)961-3111 / 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목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 주, 1, 3) Tel: (201)342-9191, Fax: (201)943-5204 /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영아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목회자찬양예배: 오후 12:30 목회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org Tel: (516)333-1757, 목사관: (516)746-4084 /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목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목요일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00 영아예배: 오후 2: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Tel: (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98-4040, Fax: (718)358-7789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a.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절기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j.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822-0500 /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km@gmail.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757-7576, Fax: (702)257-9191 /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 (704)941-0821, Fax: (704)941-1625 / 목사관: (704)989-4412 /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843 /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c.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 Fax: (610)222-0692 /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8:00 영 아 예 배: 오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4)61-1235, Fax: (410)461-8823 / 3165 St. Johns Lane, Ellipton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6: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대영문부: 오후 8:00 초중부: 오전 10:00(월-토) / 11:00(일) 주일학교: 오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 2 Main St, Hpkinton, MA 017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337-9448, 882-0181, Fax: (307)-9446 /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8900 / 0998(백스)경음 /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osephsvision21.org	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재희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델린교회 담임목사: 하세우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 (915)755-1490, 타택: (915)751-4365 /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 706 Wi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 10201 Robic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josephsvision21.org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 3264 Corporate Court Ellipton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월-토)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한)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토) Tel: (253)535-6207, 531-8424 / Fax: (253)535-1433 /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피조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오전 6:30(토) www.kpcca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트레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란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				



우리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1)



유경옥 전도사
(화가, 수곡미술선교회 회장)

본지가 주최한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4월 10일-18일)가 예루살렘에서 열려 성지순례와 함께 진행됐다. 이에 세미나에 참석했던 전 본지 기자 유경옥 전도사가 쓰는 기행기를 "성지순례-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제목으로 연재한다. 필자 유경옥 전도사는 화가로 현재 수곡미술선교회 회장, 미국청교도 가정사역원 원장, UTS기독교교육학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부평현대교회 가정사역부를 담당하고 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애독을 바란다. [편집자주]

A. 베들레헴 지역

4월 12일 금요일, 해지기 30분 전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유대인의 사배트(Shabbath 안식일)다. 강의실 세미나는 12일 오전까지 강행하고 폐회예배를 마친 후 오후 12시 30분에 성지순례 길에 올랐다. 폐회예배가 있지만 복장을 자유롭게 하라는 광고가 있어 현대판 순례단답게 생기 넘치는 복장들로 엘살(El Sar) 관광버스를 3대에 나누어 탔다. 1호 버스는 목회자들과 전도사,

선교사님들과 가족이 올랐고 2호 버스에 장로, 권사, 집사님들과 가족이 탔고 기차는 3호 버스에 올라 본지 편집국장인 유원정 사모와 같은 좌석에 앉았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뉴욕본교와 캐나다 분교 학생들과 가족, 인솔자 목사님 내외분, 강의와 가이드를 맡으신 김주경 목사님 내외분, 연세대 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도 타셨다. 이 세 대의 버스는 목적지는 같되 각 버스 사정에 따라 주정차를 하고 움직였다. 이번에는 편집주제에 맞는 순례 답을 쓰되 각도를 지난번과 다르

게 하고자 한다. 1998년에 기자로 재직할 때 본지에 24회 연재된 바 있는 "김주경 목사와 함께하는 성서지리학"이란 주제나 이번 세미나 직전까지 연재됐던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에서는 성지에 대한 각종 객관적 정보가 비교적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여행의 관광적 관점이나 역사적 사실보다 순례 행보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마음자세로 보고 은혜 받은 바를 장소 장소마다 좀 더 녹여내려고 한다. 또한 6일간 순례 중 하루 일정을 3회 내지 4회로 나누어 쓰려고 한다.

A-1 예루살렘 남쪽 전망대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첫 방문지역을 베들레헴으로 선정한 것이 은혜롭다. 모든 일정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시기 전까지 평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곳의 순서대로 짜여졌다. 완벽할 순 없지만 그래도 가장 현실 가능한 여건으로 구성돼 있어 감사하고 귀하다. 마지막 날 일정이 사해 부근과 여러고 쪽은 거리상 또한 예수님의 직접 사역과 거리가 있어 별도로 할 수

밖에 없음이 이해가 된다. 라마다 예루살렘 호텔을 나오니 도로의 많은 건물의 옥상에는 흰색바탕에 파란색의 다윗의 별과 줄이 있는 이스라엘 국기가 촘촘히 열 지어 팔려있다. 우리의 현충일과 같은 베테란스데이와 광복절에 해당하는 독립기념일이 월요일에 연이어 있기에 관광객이나 학교 등은 국기를 게양한다. 순례단은 베들레헴에 가기 전

를 바라보았다. 날씨는 따뜻하고 살랑바람은 가끔 모자를 눌러 쓰게 했다. 4월이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고 한국의 6월 햇볕처럼 한낮엔 따가우나 습하지 않고 건조한 것이 특징이다. 하나짜리 전망대에서 북쪽을 향해 있을 때 오른쪽으로 다윗성이 있고 감람산, 모리아산이 있는 옛 예루살렘 (The Old City)과 왼쪽으

로 보인다. 순례단은 삼삼오오 짝지어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지평을 의우고 바라보기도 하고 모리아산의 '바위의 돍'(The Dome of the Rock, 현재는 이슬람성전인 황금 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사진1).

꽤 많은 관광버스가 언덕 위 도로에 들고나고 있어 본 버스를 기다리느라 어리둥절해하는 단원도 있었는데 그사이 오래된 쥐엄나무와 올리브나무 가로수들이 우리에게 그늘을 드리워주었다.

타자 같은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땅을 밟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순례단은 육적으로 남의 나라지만 영적으로 바로 고향 같은 푸근함 속에서 싱그러운 지중해성 기후가 실어주는 바람을 받으며 순례단원들은 한시 도시락을 먹었다. 이때 병 물은 필수인데 다음날부터 군포제일교회 권 목사님께서 모두에게 끝나는 날까지 병 물을 사 주셨다.

생생수 되신 예수님의 은유는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적절하셨는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메일: sookokart@gmail.com (다음호에 계속)



먼저 예루살렘 남쪽 전망대인 알몬 하나짜브(Armon HaNatziv Observation Point) 언덕에 들려 맞은 편 북쪽으로 보이는 예루살

로 1948년 이스라엘 독립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종려나무가 많고 새로운 건물들이 빠르게 들어서 있는 신 예루살렘(The New City)



(7면에서 계속)

해변에서 민물 샤워로 눈을 씻어 낼 때까지 계속 눈이 따갑고 쓰린데다가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다. 그 일로 워낙 놀라서 사해 바닷물 속에 뜨겁게 한 번 몸을 담그거나 해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거린다. 해변대 유적 흔적만 있는 것같이 온 몸에 시커먼 진흙을 한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다들 그 짧은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사해 바다에서 체험 할 것을 다 하고 깨끗이 씻고 옷까지 갈아입고 버스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충격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이었다. 불과 3년만에 약 6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간 광기의 현장을 재현해 놓은 곳이었다. 모든 소지품을 빼앗고 샤워장에서 독가스 샤워로 죽여서 일부 죽은 이의 피부는 벗겨서 가죽백을 만들고, 머리카리는 빗자루를 만들고, 뼈는 태워서 비료를 만들고, 건강한 사람은 노동력으로 쓰든지 일부는 몰도트

같이 의학실험으로도 사용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런 생생한 증거물 없이 믿을 수가 있을까? 병균을 주사해 놓고 어떤 병균에 얼마만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발가벗겨 병동실에 넣어 놓고 추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지... 몇도 화상에 죽는지... 전쟁용으로 개발한 생화학 무기가 얼마만큼 강력하고 빠르게 살을 썬게 만드는지...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이 땅의 생지육이 따로 있을까?

믿기 어려운 것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지성과 기술력과 신학을 자랑하는 독일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엘리트들에 의해 그 일들이 고안되고 자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더 더욱 믿기 어려운 사실은 그 당시 독일인 대부분이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해명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곳에서 발견음이 저절로 멈춰졌다. 그 당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이다. 발가벗긴 남녀노소 시체들을 불도저가 거름더미를 밀고 가듯이 수십 구의 시체더미를 밀고 가는 장면

이었다. 부릉부릉거리는 거대한 불도저 엔진소리와 발가벗긴 남녀노소 시체더미들이 툠나뭇처럼 아래위로 뱅기며 불도저에 밀려가는 모습... 갑자기 터져 나오는 눈물과 함께 온 몸이 떨려왔다.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 함께 간 일행들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가서 견딜 수 없는 걱정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벗어나면서 기념관이 관광객들에게 던지는 두 가지 화두가 나를 붙잡았다. 첫째는 "600만명의 죽음은 방아쇠를 당긴 한 사람 한 사람이 없다면 있을 수 없다"는 문장이고 또 하나는 카인에게 하나님이 던지셨던 질문이다. "네 형제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나의 형제자매는? 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혹은 밖에? 아무리 내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이란 사망의 길이다. 그러나 지옥 같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천국 안에 있는 것이다.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에 포로들

을 해방시키려 들어간 연합군 병사 한 수용소 벽에 쓰인 글에서 받았던 충격이 있다. 피로 쓴 찬송가 가사였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쓴 글씨였다. 포로로 잡혀 감옥에 갇혔으나 정작 그는 자유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런 장소 그런 생지육의 현장에서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 이 땅의 생지육 속에서도 그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분명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나타난 인간의 광기가 큰 충격이지만, 그런 생지육 속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피어나는 복음의 능력이 더욱 큰 은혜와 감동이 아닐 수 없다.

'무덤의 정원'서 성찬식 시간 시간마다, 가는 곳마다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지만 골고다 언덕 밑 예수님께서 이틀간 죽은 가운데

데 갇혀서 '무덤의 정원'에서 드리는 성찬식이 정점이었다. 그곳에서 행한 성찬식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죄와 저주와 광기의 현상인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보고 난 뒤였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그 죄와 저주와 광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 겹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 그리고는 빌라도가 그렇게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해도 그 노력을 도의 시하고 묵묵히 운명으로 더러운 짐을 받아주시고... 때리는 뺨을 맞아주시고... 조롱과 모욕을 다 받아주시고... 온 몸을 채찍에 찢기게 데도 다 받아주시고... 가장 극악한 고통의 사형인 십자가에 스스로 끝까지 걸어가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방법 이외에는 죄로 물든 단단한 우리의 자아를 사랑으로 녹이고 깨뜨리며 생명의 빛이 임할 방법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번 세미나 강의 말씀이기도 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주님이 자기를 보고 우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던 말씀이 세미나를 다녔던 지 열흘이 되었지만 아직도 가슴에 공명을 울리고 있다. 겹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부활시키라는 말씀이다.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3천년이나 되었다는 겹세마네 동산의 감람나무 고목들은 "네 형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의 의미를 알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는 겹세마네 동산의 그 반석은 땅바닥이 핏방울 되어 울려 드리던 주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을 알고 있지 않을까?

성지순례를 통해 진정 가져오고 싶었던 것. 그것은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심장과 눈물... 그 겹세마네 기도였다. 우리와 자녀들,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신규주문서적을 포함한
모든 서적!!!!

SALE

잡지, CD 등 일부품목 제외

40%

+ TAX

문의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베스트셀러
최신간 포함**

40%

SALE

저희 한국서적에서는
책자 만드실 분들께
한국에서 제작하여
뉴욕으로 배송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
납품해 드립니다.

아빠의 선물 (13)

아름다운 관계를 남기고 떠나기

정정숙 박사 (패밀리리치 원장)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서 생전에 관계 맺었던 사람들과 작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 숙식원한 시간이 된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실패하고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관계에 얽힌 때들을 풀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다. 인생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이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 땅에 남기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매일 여행자로 살기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 것입니다. 이 땅이 마지막 정착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안됩니다. 가야 할 분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으며 여행의 목적을 이루는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매일 여행자로 산다는 말은 매일 죽음을 기억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최후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이 만 나면 "죽음을 기억하라"고 인사했고,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은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말로 멋지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나의 마지막 날로 여기면서 하루를 값지게 사용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는 매일 자신을 향하여 이런 인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말로.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바라보면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가장 복된 죽음을 맞이 위해서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값진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상 순례의 길에서 만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열매 맺고 고난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으며 죽음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삶을 풍성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열매 맺는 죽음을 위한 8가지 원칙'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며 이 글을 마치고 싶습니다. 캐리 슈 목사부부의 "내 생애 마지막 한 달"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4L를 생각하면 금방 멋진 문장이 떠오릅니다. 'Live, Love, Learn, Leave' 여기에 살을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Live passionately(열정적으로 살라), Love completely(온전히 사랑하라), Learn humbly(겸손히 배우라), Leave boldly(담대히 떠나라). 마지막 '담대히 떠나라'는 말 앞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가지 습관"에 나오는 "Leave legacy"란 문구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이 되겠지요.

'Leave legacy and Leave boldly(유산을 남기고 담대히 떠나라)!'

▲웹사이트: familytouchusa.org

(글)

싱고 펠리핀

필리핀

필리핀의 남부 잠보앙가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무더운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루에 9시간씩 정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3시간씩 정전이 되어 냉장고 안의 음식은 자주 상하고 사람들의 삶도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잠보앙가 도시는 남부 민다나오 섬의 도시 중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잠보앙가 도시는 부정부패가 심하다보니 이렇게 많은 정전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하루에 9시간씩 끊겨도 한 달 전까지는 더 많이 나옵니다. 늘 전기가 끊어지고 지역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13일에 선거

이번 2013년 5월 13일에는 필리핀 전역에서 상원의원, 하원의원, 도시장, 시장, 시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거리마다, 벽마다 선거용 사진이 가득합니다. 시내는 선거 준비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전이 많이 되어 여기저기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요란한 소리와 더운 바람을 뿜어내고, 선거하는 차량들은 사이의 강남스타일 음악을 틀어놓고 큰 소리로 선거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부패로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돈을 많이 사용하면 선거에 당선되고, 돈이 없으면 선거에서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국민을 위한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림빠 마을에



여름 성경학교 잘 마친

매년 여름성경학교를 5월에 하였는데 올해 2013년은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해야 할 일이 많아 한 달 더 먼저 여름성경을 시작하였습니다.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여름성경학교를 하였는데 학생들은 100여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하는 동안 이상기후로 인하여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참석하여 성경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1, 2, 3학년 저학년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였지만 올해는 4, 5, 6학년들이 더 많이 참석하여 매일 새로운 성경 말씀을 외우기에 바빴습니다. 마지막 날은 시상식을 하였는데 무슬림 학생들이 성경말씀 5개를 열심히 외워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름성경학교 기간 중에 학생들은 간식 시간을 제일 기다립니다. 평소 때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여름성경학교 기간 중에는 매일 새로운 음식 2개를 먹을 수 있어 좋아했습니다. 전에는 여름성경학교 때 학교의 기숙사에 숙식하면서 여유롭게 성경학교를 준비하였는데 올해 2013년에는 선거가 있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서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갈 때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무슬림들은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많이 있어 보인다 싶으면 남치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필리핀 안에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하는데 가톨릭국가이다보니 걸보양만 기독교인처럼 행동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감합니다.

땅 값을 모두 지불함

2010년 6월에 림빠 마을 안에 새희망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부지를 2009년에 구입하였고 매일 새로운 성경 말씀을 외우기에 바빴습니다. 마지막 날은 시상식을 하였는데 무슬림 학생들이 성경말씀 5개를 열심히 외워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필리핀처럼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에서는 공문서 위조도 흔한 일이 고 무슨 일에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습

니다. 저희 학교 면적은 모두 3,600스퀘어입니다.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가 1스퀘어(sq)입니다. 1스퀘어미터 당 90페소(한화 2700원, 미화 2달러)이며 3,600x90=324,000페소(8,000달러, 한화 9백50만 원 정도)입니다.

학교를 설립하면서 많은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실 8개, 화장실 2개, 2층짜리 기숙사 건물 등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정작 땅값은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그동안 마음을 졸여왔습니다. 재정이 채워질 때마다 땅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부터 공사를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비가 부족하다 보니 학교 땅값 지불은 늘 생각만 할 뿐 다른 방법이 없다보니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돈을 모아두었고, 얼마 전에는 있는 돈을 최대한 모아 비로소 땅값을 모두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은 좀 한결 편해졌

습니다. 땅과 건물이 모두 우리 것이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아직 학교 담장과 새 건물의 천장 작업이 남았는데 선교비가 좀 더 채워지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제목

① 5월 6일부터 10일까지 현지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주최하는데 잘 진행되도록

② 림빠 마을에서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따우수 무슬림 출신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③ 6월 초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학액이, 준탁이 수업료가 채워지도록, 새희망학교에서 새 학기를 준비할 때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④ 선교지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메마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육 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정운 선교사 드림 ohgongtak@hanmail.net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서부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주변교회, 남가주리더교회, 남가주사랑교회, 대동성교회, 동문교회, 동양선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드림교회, 삼성장로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베델한인교회, 밴쿠버리델비아교회, 복음장로교회, 브리지교회, 새생명선교회, 세계비전교회, 세계소망교회, 안디옥장로교회, 엘비안침례교회, 요셉선교회, 윌셔크리스천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창대교회, 코너스톤교회, 토렌스주요교회.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7. 사모의 영성 가꾸기(2)

오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00년전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지금도 목회자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나를 알면 우리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주리신 예수님께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마귀가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기 어려운 것을 시킨 것이 아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마귀는 쉽게 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므로 첫 번째 시험

마귀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 이 시대 목회에도 경제적 시험은 늘 존재

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로 이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종종, 아니 자주 옵니다. 이민 목회된 한국목회된 목회와 밀접한 관계는 경제문제입니다. 이민목회는 특히 경제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착하지 못하여 떠돌아다니는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나의 악세사리로 여기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조그마한 사건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때문에 오는 경제적 타격은 매우 큼니다. 사모들의 생활 중에 그래도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사모들은 행복한 사모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의뢰할 수 없기에 사모들은 일주일간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일에는 성도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부에 들어가 아이들을 돌보아 줍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집으로 돌아 간 후에도 끝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해야 합니다. 사모들에게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어느 성도 한 사람도 사모의 고충을 알아주는 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거나 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 마련하는 것이 부담됩니다. 이런 때에도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마4:4) 이것은 목회의 현실과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2000년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신8:3).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하나님을 통치하는 백성으로 삼고 싶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은 이제 끝났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을 알게 하리라 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 떡으로만이 아님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고 싶어서 광야길로 내보신 것입니다.

옛날 어머니사모의 시대를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 시절엔 한국전체가 가난과 궁핍 속에서 교회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는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생기는 시대

가 되었습니다. 목회현장에서 성도들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현실 속에서 현대판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가 사모들에게는 큰 과제가 됩니다. 이것은 비록 사모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천이라면 다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백성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해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나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안다면 아무리 현대가 급변한다 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부흥이 급속도로 저하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부흥입니다. 배가 고플 때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도모임도 부흥되듯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 교회행사가 왜 그렇게도 귀찮아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굳이 기도한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야 할 필요가 없어져 갑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목사의 권위는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목회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은 하늘나라 법에 의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속에서는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을 책임지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주는 불안함 때문에 아직도 천국의 시민권을 사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목회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나가는 사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

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십시오. 마귀는 예수님께 보기 좋게 패전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말씀(5, 6절)을 들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긴 것들을 보고 이번에는 기록된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 도전해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줄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심자기를 지지 않게 하려는 마귀의 작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으로 심자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모들도 목회의 내조자로 때로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창 개척교회를 하는 동안에는 한사람이 귀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섬기게 됩니다. 특히 이민목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성도 한사람은 환율과 비례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자리만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벤즈 자가용이라도 타고 오는 성도가 들어오기라도 하면 더욱 긴장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헌금이라도 좀 많이 드리는 성도들에 대한 태도도 다릅니다. 직분을 맡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귀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목회자들은 결국 그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양육시키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하는 성도들을 위한다면 보면 그들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갖게 되는 권력 앞에 목회자는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종류의 권위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이징과 목회자의 권력이 됩니다. 돈의 힘이 이제는 강단에 올라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진리의 힘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심자가 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세상 방식이 교회 안으로 흡수처럼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마귀의 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심자기를 묵묵히 지고 가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봅시다(마16:24). "사모들의 행복한 입술은 마귀를 KO시킬 수 있습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레위인의 특권(신18:1-8)찬361장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께서 섬기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셨습니다. 제사 드리고 남은 것은 모두 그들의 몫이고(3) 처음 익은 것들은 모두 그들에게 돌리게 하셨습니다(4).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와 택한 곳에서 제사 일만 종사하게 하셨습니다(6-7).

특권은 의무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이 섬기는 특권을 소홀히 할 때 여지없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제사장들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모든 의식주 문제를 주님이 보강하셨습니다(마6:33). 먼저 구할 것을 먼저 하는 지혜로운 제사장으로 살아갑시다.

화 그 선지자(신18:9-22)찬267장

가나안에서 제일 큰 문제는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혼잡케 하는 수많은 복술자, 요술사, 무당, 천전자, 초혼자를 철저히 경계하셨습니다(10). 교훈에 바로 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계시자를 보여주시면서 그 선지자의 말만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15, 18, 19). 그는 여러 선지자들 중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절대 선지자입니다.

니다. 사도들의 증거대로 그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며(요1:21-22, 행3:22-23) 누구든지 그의 계시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고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시대보다 더 복된 시대에 사는 이유는 그 선지자가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성령 안에서 완성하시는 시대에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에 착빙합니다.

수 도피성제도(신19:1-14) 찬79장

도피성은 무죄자의 피 흘림을 막고 거룩함을 지킴으로 가나안의 복을 지속케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13). 가나안에 6성읍을 구별하여 어디서나 빨리 피할 수 있는 곳에 세우 과실치사함의자가 보수자의 눈을 피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만일 이 제도를 이용하여 고살자인 경우는

제사장이 잡아 반드시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십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그에게 피하기만하면 즉시 용서를 받으신다. 이미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 사함과 정결의 은혜를 받습니다(요일1:9).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지금 그 도피성으로 달려갑시다.

목 위증죄(신19:14-21)찬518장

하나님은 가나안의 성결을 위해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공혈이 많으신 하나님인 동시에 의의 칼날로 선을 그으셨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21)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수심을 가르치지 아니하리 성결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인 것입니다. 특히 위증의 죄를 철저히 다루셨습니다(15-17). 위증이 발견되

면 엉당한 벌을 받게 하심을 보면 하나님 백성에게 진실이 생명임을 보입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이상,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합니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갑시다.

금 영전방법(신20:1-20)찬390장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울 때 지킬 일은 첫째, 담력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를 상기시키심으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둘째, 평화를 선포한 다음 그들의 반응 여부에 따라 처리하게 하셨습니다(10) 셋째는 그 성읍의 남자들은 모두 죽임으로 우상숭배의 유혹을 예방하셨습니다(17-18). 약력과 싸우는 그

리스도인은 처음 받은 순수한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진갑주(엡6:10-17)를 취하여 믿는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모든 싸움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디다(막9:23).

토 의로 충만케 하라(신21:1-14)찬265장

가나안의 생명은 성결입니다. 그 땅에서 죽은 시체를 발견할 때는 속죄의식을 거쳐(3-4) 무죄자의 피 흘린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포로를 아내로 삼을 때 1개월 동안 그 부모를 위해 애곡하게하고 난 다음(13) 아내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서로

맞추는 사회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모든 일에 의와 긍휼이 공존하는 성품을 배워 어디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성결의 표준이 흠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 작은 일에 서부터 의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여 복된 가정을 이루어갑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주일5부예배: 오후 9: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경동구 영우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n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3770 서울시 중랑구 영우동 340-(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교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3-8676(교관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장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8,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영우동 622-3 (158-053)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0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용두동 221-4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5: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71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8:5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2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신약기도회: 오전 8:30/9: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82)2-568-0191, Fax: (82)2-562-2738 인천시 서구 신림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7) 서울시 중랑구 인사동 137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827-1009,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2422,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520 (158-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인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시 이천동 제1지 285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1:4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신약기도회: 오전 8: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상산구 봉곡동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2: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5882,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양천구 영우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주안교회 담임목사: 최홍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신일4동 448-23	청주주노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tador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주일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개혁 기념: 아침 7:40 유. 초. 고. 교동부예배: 오전 9:30(주말)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스페니쉬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다시 보는 은혜의 땅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 본 세미나를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진행해온 발행인 장영춘 목사가 축도하고 있다.



▲ 세미나 기간 중 빼놓을 수 없는 통성기도 시간



▲ 황의영 목사가 강의를 마치고 장영춘 목사함께



▲ 2014년 파리 세미나를 위해 수고할 김승천 목사(오른 쪽)가 강의를 마치고 장영춘 목사와 기념촬영 했다.



▲ 갈릴리 바다 선상 예배에서 설교한 권태진 목사. 이번 성 지순례 기간 동안 참석자들에게 물과 간식을 대접했다.



▲ 본 세미나의 평신도팀을 위해 항상 수고해온 김혜천 목사부부와 장영춘 목사.



▲ KAPC 뉴욕노회 목사들이 기혼샘 입장에 앞서 기념촬영 했다.



▲ 본 세미나를 위해 항상 수고해온 퀸즈장로교회 글로리아 찬양팀 장로부 부들이 장영춘 원로목사부부와 박규성 담임목사부부와 기념촬영 했다.



▲ 본 세미나에 처음 참석한 동부개혁신학교 캐나다분교 학생들이 안내를 맡아 수고했다.



▲ 주로 목회자들이 많이 탑승한 1호차. 가이드는 장세호 목사가 맡았다



▲ 평신도들이 많이 탑승한 2호차. 가이드는 허정문 목사가 맡았다



▲ 신학생들이 주로 탑승한 3호차. 가이드는 김주경 목사(맨 왼쪽)가 맡았다.



담임 목사 청빙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장로교회(PCUSA)는 36년의 역사와 자체성전을 소유한 준비된 교회로써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1. PCUSA 교단소속 또는 본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분.
2. 본교단이 인정하는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하신분.
3.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2중언어(한/영) 능통하신분
4. 목회경력 10년이상 이신분.

■ 제출서류

1. 이력서(한/영 각1부) 및 가족사진
2. 목회 소견서
3. 본인, 사모, 가족소개서
4. 최근 6개월내 설교 동영상(CD or DVD)
5. 대학 및 신학대학 졸업 증명서
6. 목사 안수 증명서

마감 : 2013년 5월 31일

우편 제출처 : Eden Presbyterian Church /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

문의 : 청빙 위원장 이영배 장로 (daniellee1028@gmail.com)

